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30
아모스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아 모 스

Amos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9:15)

וְנִשְׁעָתִים עַל-אֲדָמָתָם וְלֹא יִנְתָּשׁוּ עוֹד מֵעַל אֲדָמָתָם אֲשֶׁר
נָתַתִּי לָהֶם אָמַר יְהוָה אֱלֹהֵיךָ :

아모스 차례

아모스 서론	〈9 제〉	233
제 1 장 이방 나라들에 대한 아모스의 예언.....	〈16제〉	236
제 2 장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17제〉	242
제 3 장 피할 수 없는 여호와의 심판.....	〈17제〉	248
제 4 장 이스라엘의 깊은 타락.....	〈20제〉	253
제 5 장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	〈30제〉	259
제 6 장 안일주의에 빠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	〈13제〉	268
제 7 장 아모스의 환상과 아마샤의 대항.....	〈13제〉	273
제 8 장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긴박한 심판을 선언하시다.....	〈16제〉	278
제 9 장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	〈19제〉	284

아모스 특별 자료 차례

아모스 서론 〈연구 자료〉 선지자들의 출신별 분류.....	235
제 1 장 〈화보 자료〉 선지자 아모스.....	241
제 2 장 〈지도 자료〉 아모스가 예언하였던 나라들.....	247
제 3 장 〈본장의 요절〉.....	253
제 5 장 〈연구 자료〉 묘성(昴星)과 삼성(參星).....	267
제 6 장 〈화보 자료〉 하맛(Hamath)의 풍경.....	272
제 7 장 〈본장의 요절〉.....	277
제 8 장 〈화보 자료〉 눈물을 담는 용기(容器).....	283
제 9 장 〈본장의 요절〉.....	289
제 9 장 〈화보 자료〉 나일 강의 수위(水位)를 재던 계측기(計測器).....	290

아모스 서론

1. ㉠ 본서의 저자와 명칭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본서의 저자가 '아모스'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2) 왜냐하면 본서에는 예언이 선지자 아모스에게 임한 것이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1:1), 아모스를 가리킬 때 '내가'라는 1인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5:1;7:1,4, 7,8;8:1,2;9:1 등).
(3) 그리고 본서의 명칭 '아모스'는 본서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기록한 선지자 아모스의 이름을 따라 지칭한 것이다.
(4) 참고로 본서의 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 '아모스' (사 1:1)를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음역(音譯)은 같지만 그 원어의 뜻은 전연 다르다. 즉 본서 저자 '아모스'의 뜻은 '짐을 진 자'이고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 '아모스'는 '강한 자'란 뜻을 가지고 있다.

2. ㉠ 아모스 선지자는 어떠한 인물인가?

- ㉡ (1) 아모스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드고아 출신이다 (참조, 삼하 14:2; 대하 11:6; 20:20; 렘 6:1).
(2) 그는 드고아의 계곡에서 양을 치며 소규모의 농사와 뽕나무를 재배하던 가난한 목자였다 (7:14, 15).
(3) 비록 그는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고 평민이었지만 자신의 가축을 돌보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았던 것이다 (7:15).
(4) 이 소명을 받은 후에 유다 출신이면서도 벨엘로 이주하여 거기서 주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7:13).
(5) 그런데 당시 여로보암 2세가 거주하였던 우상의 중심지 벨엘에서 그의 설교가 심한 반발에 부딪히자 그는 유다에 돌아와 거기서 자신의 예언을 글로 기록하였다.
(6) 그리고 본서를 보면 그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악을 간파(看破)할 정도로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7) 한편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와 동시대의 선지자로 (호 1:1) 유다의 웃시야 (B. C. 783-742)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B. C. 786-746)의 통치 기간 중에 활동했다 (1:1).

3. ㉠ 본서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라.

- ㉡ (1) 유다 왕 웃시야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평화와 번영의 시기였다.
(2) 이러한 부강은 북왕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던 아람 왕 벤하닷 3세 (Ben-Hadad III, B. C. 796-776)가 앗수르에 패배하여 북왕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3) 아람이 패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메섹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권하에 들어갔으며 (왕하 14:28) 북왕국의 영토는 하맛에까지 확장되었다.
(4) 이와 같이 일단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자 이스라엘은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흥하였고 이것은 유다에도 영향을 미쳐서 유다도 상당히 부흥하게 되었다.
(5) 그러나 그들의 경제적인 번영은 전례가 없을 정도의 사회적 부패 현상을 초래하였는데

(2:6-8;5:11, 12), 이러한 부패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숭배로 인한 풍기 문란한 영향을 받아서 생겼다.

(6) 이러한 퇴폐 풍조가 히브리인들의 사회에 영향을 끼친 결과는 정의의 타락, 상류 계층의 사치스럽고도 방종스러운 생활 태도와 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였다. 이때를 배경으로 본서의 내용이 기록되었다(참조, 호 2:5;5:14).

4. Q 본서의 저작 연대는 언제인가?

- A (1) 본서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안정과 번영의 절정은 여로보암 2세와 웃시아의 통치 기간 중간 시기인 B. C. 760년경 또는 그 이후를 가리킨다.
- (2) 또한 본서에는 이스라엘에 닥칠 재난이 예언되어 있는데 (7:9) 이것은 B. C. 745년부터 시작된 앗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 (Tiglath-Pileser III, B. C. 745-727)의 침략을 말한다.
- (3) 일부 학자들 (R. S. 크립스 등)은 아모스가 앗수르의 세력 확장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 (4) 왜냐하면 그가 어디서 재난이 닥쳐올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지 그는 이스라엘의 부패와 불신앙 때문에 오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에 근거하여 단순히 예언하였을 뿐이다(참조, 창 12:1, 2).
- (5) 따라서 본서의 기록 연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번영이 현실로 기록된 점으로 보아 B. C. 760년 이후이며 앗수르의 침략이 예언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745년 이전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Q 본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 A (1) 본서의 주제는 우상 숭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것이다.
- (2) 당시의 이스라엘은 사상 유례 없는 번영과 발전을 이루었으나, 동시에 방탕과 부정 부패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참조, 신 31:29; 사 3:16).
- (3)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모스는 겁없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선포하였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모스의 예언 후 약 60년이 지난 B. C. 722년에 망하였다.
- (4) 그러나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종말을 선포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닦인 시대처럼 회복될 것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에게 소망과 격려를 주고 있다(참조, 말 4:1-3).

6. Q 본서의 기록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 A (1)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방종과 배교와 부패를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 이러한 상황은 아모스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만든 동기가 되었다.
- (2) 당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고 음란과 부패가 만연하였으면서도 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어떠한 재앙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자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 (3) 그들은 여호와를 입술로는 경배하였으나 마음은 그에게서 멀었다. 그들의 생활은 이기주의, 탐욕, 부도덕, 가난한 자에 대한 압박 등으로 특징지어지며 그 땅에는 어떠한 공의도 실행되지 않았다.
- (4) 아모스 선지자는 그러한 백성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박두한 운명을 경고하려고 하였다(참조, 나 1:1; 함 1:1; 습 9:1).
- (5) 그러나 본서의 목적이 경고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종국적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희망이 내포되어 있다.

7. Q 본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A (1) 본서를 내용별로 구분하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2) 첫째, 1:1, 2에는 본서가 예언된 연대와 예언 동기가 언급되어 있다.
- (3) 둘째, 1:3-2:16에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다. 즉 이 심판은 주변 국가들의 백성에게 선포되었으며 (1:3-2:3), 또한 부패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도 선포되었다 (2:4-16).
- (4) 셋째, 3:1-6:14에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하여 일정한 표현 방식으로 말한 아모스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다.
- (5) 마지막으로 7:1-9:15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본 다섯 가지의 환상들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8. Q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A (1) 저자와 주제 / 1:1, 2
- (2) 아모스의 예언들 / 1:3-2:16
 - ① 다메섹에 대하여 / 1:3-5
 - ② 블레셋에 대하여 / 1:6-8
 - ③ 두로에 대하여 / 1:9, 10
 - ④ 에돔에 대하여 / 1:11, 12
 - ⑤ 암몬에 대하여 / 1:13-15
 - ⑥ 모압에 대하여 / 2:1-3
 - ⑦ 유다에 대하여 / 2:4, 5
 - ⑧ 이스라엘에 대하여 / 2:6-16
 - (3) 아모스의 설교 / 3:1-6:14
 - ① 이스라엘의 운명 / 3:1-15
 - ② 이스라엘의 타락 / 4:1-13
 - ③ 이스라엘을 위한 애가 / 5:1-6:14
 - (4) 아모스의 환상 / 7:1-9:15
 - ① 삼키는 메뚜기의 환상 / 7:1-3
 - ② 불의 환상 / 7:4-6
 - ③ 다림줄 환상 / 7:7-9

9. Q 본서의 중심 요절은 무엇인가?

- A '내가 너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너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15).

연구자료					
선지자들의 출신별 분류					
출신	목자	평민	왕족, 귀족	제사장, 레위	미상
예언국					
유다		미가	이사야 다니엘 스바냐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	요엘 오바다 학개
이스라엘	아모스				호세아
이방					요나, 나훔

제 1 장 이방 나라들에 대한

아모스의 예언

단락구분 1-2 아모스의 예언이 선포된 시대와 그 목적 / 3-5 다메섹에 대하여 예언하다 / 6-8 블레셋에 대하여 예언하다 / 9-10 두로에 대하여 예언하다 / 11-12 에돔에 대하여 예언하다 / 13-15 압몬에 대하여 예언하다

1 유다 왕 웃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이 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2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 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들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4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5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베에던에서 흉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6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들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음이라

7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8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

서 흉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들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의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9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들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음이라

10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11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들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12 내가 데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1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들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14 내가 랍바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리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15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1. ㉠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 (1) 본장에는 본서의 기록 목적과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

(2) 즉 본장의 서두에는 이스라엘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곧 이어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등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3) 그런데 본장의 경고가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진노를 발(發)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4)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죄악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심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한다(참조, 롬 8:35-39).

2. **㉠** 이스라엘에 대한 목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1절)

- ㉠** (1) '드고아의 목자 중에 한 사람'인 아모스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목시의 말씀'을 받았다.
- (2) 그런데 왜 유다 사람인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도록 소명을 받았는지에 대하여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번영으로 인해 방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을 꾸짖고 견제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모스를 택하였다는 사실이다.
- (3) 이처럼 중대한 임무를 하나님께서 가난한 일개 목자에 불과한 아모스에게 맡기신 것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원하셨기 때문이다(참조, 고전 1:26-29).
- (4)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조건 때문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아모스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들어서 사용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부름 받음을 알아 언제나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참조, 고후 12:9).

3. **㉠** 아모스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목시를 받은 때는 언제인가? (1절)

- ㉠** (1) '유다 왕 웃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地震) 전 이 년'에 아모스는 목시의 말씀을 받았다.
- (2) 그런데 여기서 '지진'에 대한 언급은 정확한 시기를 나타내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 (3) 비록 이 현상이 일반에게 잘 알려진 것으로 스가라 선지자도 이에 대해 언급을 하긴 했지만(슌 14:5) 이것이 웃시야와 여로보암 2세 때라는 것 외에는 알 수 없다.
- (4)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론 **㉠** 4를 참조하라.

4. **㉠**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어디서부터 부르짖으며 음성을 발하시리라고 하였는가? (2절)

- ㉠** (1)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리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던 성전이 있던 것으로서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참조, 왕상 5:5-8; 사 8:18).
- (3)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며 부르짖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가 선포되던 곳에서 하나님의 책망이 선포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 (4)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당한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신다(참조, 딤후 3:16, 17).

5. **㉠**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고 음성을 발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하였는가? (2절)

- ㉠** (1)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고 음성을 발하실 때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라고 하였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재앙 때문에 한발(旱魃)이 심각하여(4:7) 모든 수목이 시들어 쇠하여져 사막같이 된다는 말이다(참조, 욕 1:12-17).
- (3) 또한 이것은 황충의 재앙을 가리키기도 하는데(7:1, 6), 이 황충의 재앙은 앗수르 군대의 침략을 상징한다(참조, 5:27; 7:17).
- (4) 이처럼 하나님께서 책망의 음성을 발하실 때 이스라엘이 누려 오던 그 번영이 곧 황폐하게 된다(참조, 3:15; 마 24:29).
- (5)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베풀었던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참조, 제 2:5).

6. **㉠** 아모스가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예언한 말들 중에 반복적으로 사용한 말은 무엇인가? (3절)
- ㉠** (1) 아모스는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2) 여기서 ‘서너 가지 죄’란 단순히 한두 가지의 적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양의 죄를 의미한다(참조, 잠 30:15, 18, 21, 29).
 (3) 이것은 죄의 심각성을 나타내어 주는 말로 이방 나라들의 죄악이 극에 달하여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 직전에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창 19:29; 민 24:20; 사 34:5).
 (4)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가, 범죄치 않고 깨끗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가?’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참조, 고전 3:17; 고후 7:1; 엡 4:13-15; 살전 3:13; 벧전 1:15).
7. **㉠** 다메섹은 어떻게 길르앗을 압박하였는가? (3절)
- ㉠** (1) 다메섹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2) 여기에서 철 타작기는 이가 달린 쇠 바퀴가 달려 있는 차로써 타작할 때 그것을 굴러 곡식 단을 잘게 부숴뜨리는 것이다.
 (3) 따라서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는 말은 철 타작기가 지나간 자리에 곡식 단이 잘게 부수어지듯이 다메섹이 길르앗을 초토화시켰다는 의미이다.
 (4) 이것은 예후의 통치 때에 아람 나라의 하사엘 왕에 의하여 자행된 악행을 가리키는 것이다(왕하 10:32, 33; 13:7).
 (5)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를 괴롭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참조, 슥 14:12-14).
8. **㉠** 다메섹에 임할 하나님의 형벌에 대하여 설명하라(4, 5절).
- ㉠** (1) 다메섹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형벌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2) 첫째,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의 모든 궁궐을 하나님께서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다.
 (3) 둘째, ‘다메섹의 빗장을 꺾는’ 형벌인데 이것은 견고하고 안전하게 보이던 그들의 요새 다메섹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4) 셋째,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벵에던에서 흠(笏) 잡은 자를 끊는’ 것이다.
 (5) 즉 ‘아웬 골짜기’와 ‘벵에던’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서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다메섹 거민들이 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한다(참조, 왕상 20:29).
 (6)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백성들이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형벌이다.
 (7) 이 예언은 실제로 B. C. 732년 앗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한 다메섹 멸망으로 이루어졌다(참조, 왕하 16:6-9).
9. **㉠**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불을 보내어 사른다고 하셨는가? (4절)
- ㉠** (1) 하나님께서는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며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고 하셨다.
 (2) 이 말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람의 수도 다메섹의 모든 궁궐과 요새들이 잿더미가 될 것을 가리킨다(참조, 왕하 16:9).
 (3) 여기에는 약한 자를 들보시고 궁궐을 베푸시며 그를 압제하는 자들에게 철저한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강조되어 있다(참조, 신 32:34-41; 시 5:5, 6; 애 3:22, 23).
 (4) 이것은 우리도 생활 속에서 약한 자들에게 궁궐을 베풀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참조, 약 1:27; 2:15-18).
 (5) 한편 ‘하사엘’과 ‘벤하닷’을 대표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이 두 왕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기 때문이다(참조, 렘 49:27).
10. **㉠** 가사는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6절)

- Ⓐ (1) 원래 가사는 블레셋의 수도로서 상업의 요충지였는데 이곳은 노예 매매의 중심지였다.
 (2) 이 가사가 지은 죄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돔인들에게 노예로 판 것이었다.
 (3)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하여 여호람의 가족들과 왕궁의 모든 재물을 약탈해 간 사건(대하 21:16, 17)을 가리키는데 이때에 많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에돔 사람들에게 팔아 넘겼던 것이다.
 (4) 또한 이것은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할 때 블레셋으로 피난한 사람이 많았는데 이 피난민들을 그들이 사로잡아서 헬라인에게 팔아 넘긴 사실(욥 3:4-6)을 가리킨다.
 (5) 당시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과는 불구 대천(不俱戴天)의 원수지간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 족속들을 괴롭히거나 멸망시키려 하였는데, 이런 자들에게 유다 사람들을 노예로 판 블레셋 사람들의 죄악은 엄청나게 큰 것이었다(참조, 시 83:4-7).
 (6)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여 그의 종으로 삼으려 하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여 주의 자녀들을 괴롭힌다(참조, 욥 1:12; 속 3:1; 눅 13:16; 고후 11:3).

11. ㉠ 블레셋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인가? (7, 8절)

- Ⓐ (1) 블레셋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는 가사를 잿더미로 만들고, 아스돗과 아스글론 그리고 에그론을 쳐서 남아 있는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2) 즉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감으로써 괴롭혔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3)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갚으실 것이라는 의미이다(참조, 요 16:8; 17:12).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와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을 강력하게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여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참조, 고전 15:58).

12. ㉠ 두로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된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하여 말하라(9, 10절).

- Ⓐ (1) 두로가 형제의 계약을 기억치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2) 여기서 ‘형제의 계약’이란 두로의 왕인 히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던 다윗과 솔로몬과 맺은 동맹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팔지 못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참조, 삼하 5:11; 왕상 5:1-12; 9:13).
 (3) 그런데 두로는 이것을 무시하고 어떤 경로로든 그의 수중에 떨어진 이스라엘 포로들을 에돔인들에게 팔아 넘겼다. 그들은 이스라엘 포로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도모하였던 것이다(참조, 겔 27:13).
 (4) 그리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예언이 임하였는데(10절), B. C. 333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함락시켜 약 3만 명의 거민들을 노예로 팔았고 수천 명의 지도자들을 사형시킴으로써 이 진노의 예언은 성취되었다.
 (5) 이와 같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의 우정이나 의리를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이다(참조, 애 1:2).
 (6)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의(信義)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고후 1:12; 계 17:14).

13. ㉠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진노를 발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 Ⓐ (1)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矜恤)을 버리며 노(怒)가 항상 맹렬하며 분(憤)을 끝없이 품었기’ 때문이다.
 (2) 여기서 ‘형제’란 이스라엘 족속들을 말한다. 왜냐하면 원래 에돔 족속의 조상이 에서

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은 야곱으로 이 둘이 형제지간이었기 때문이다.

- (3) 그런데 형제라면 당연히 아끼고 긍휼히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을 칼로 도륙(屠戮)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참조, 민 20:18; 욥 1:10).
- (4) 이 귀절이 주는 교훈은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성도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이다(참조, 갈 6:10).
- (5) 우리는 진정 내 이웃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에게 상처만 입히는가? 우리는 말로써가 아니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엡 5:9).

14. ㉠ 암몬 자손에 대하여 설명하라(13절).

- ㉠ (1)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자신의 두 딸 중 작은 딸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벤암미’인데 이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참조, 창 19:38).
- (2) 한편 ‘벤암미’를 뜻하는 히브리어 <벤아메>는 문자적으로 ‘나의 백성의 아들’ 혹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나의 아버지 혈통에 속한 종족의 아들’을 의미하며, 따라서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의 실제적인 친족 관계를 암시한다.
- (3) 이 암몬이 조직화된 국가로서의 모습을 나타낸 시기는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 때였다(참조, 사 3:13; 10:7).
- (4) 그 이후부터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참조, 10, 11장; 삼상 11장; 삼하 10-12장; 왕상 4:21, 31; 대하 20:1; 27:5).
- (5) 이들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B. C. 961-922)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머물러 있었으나 점차 세력이 확장되어 가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참조, 왕상 22:48; 왕하 10:32; 대하 20:1, 2).
- (6) 그러나 B. C. 580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B. C. 605-562)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말았다(참조, 렘 49:2).

15. ㉠ 암몬 자손이 저지른 죄는 무엇인가? (13절)

- ㉠ (1) 그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기 위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잔인한 죄악을 범하였다.
- (2) 원래부터 암몬 족속은 영토 확장에 대한 욕심이 많은 민족으로(사 11:13; 삼상 11장)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어(삼하 10:6)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이런 죄악을 저질렀다(왕하 8:12).
- (3) 이와 같이 인간적 탐욕에 빠진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위하여 갖은 악을 다 자행하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참조, 잠 23:1-3; 약 1:15).
- (4) 우리도 늘 세상과 접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여러 가지 탐욕들이 마음에 생기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 탐욕들을 물리쳐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이다(참조, 잠 1:19; 전 5:10; 합 2:9, 10; 마 27:5; 딤후전 6:9; 약 5:3).

16. ㉠ 암몬 자손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는 무엇인가? (14, 15절)

- ㉠ (1)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랍바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리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간다’는 것이다.
- (2) 여기서 ‘랍바 성’은 암몬의 수도이며(렘 49:2), ‘궁궐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리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라는 말은 그들에게 임하는 멸망의 진노가 철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이처럼 탐욕이 빚어낸 범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가혹하리 만큼 엄청난 책망을 하신다(참조, 행 5:1-10).
- (4) 그래서 예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보다 어려운 것임을 밝히셨고(막 10:25), 직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눅 12:15).

화보자료

선지자 아모스. 파리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 성경 사본의 삽화이다. 아모스와 함께 그려져 있는 양은 그가 목자(牧者) 출신(1절)임을 나타낸 것이다.



아모스는 드고아(Tekoa)에서 가축을 돌보던 목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선지자 활동을 한 자이다(1절; 7:15). 그런데 본서를 읽어보면 아모스가 한낱 무식한 촌부(村夫)가 아닌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자였음을 알 수 있다(참조, 2:10-12; 5:25-27).

제 2장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단락구분 1-3 모압을 향하여 진노하시다 / 4-5 유다에게 진노하시다 / 6-8 이스라엘의 부정과 임제와 음행을 책망하시다 / 9-12 이스라엘의 배은 망덕을 책망하시다 / 13-16 이스라엘에게 임한 진노의 형벌

1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들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란 만들었음이라

2 내가 모압에 벌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3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들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의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

5 내가 유다에 벌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6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들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절례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7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8 모든 단 앞에서 전당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

십이니라

9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잘멸하지 아니하였느냐

10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어 사십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11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3 곡식 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 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14 빨리 달음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15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16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 ㉠ 본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1장에서처럼 본장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내리시는 진노가 기록되어 있지만, 1장과는 달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있다.
- (2) 먼저 모압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간략하게 언급된 뒤 이스라엘의 죄가 상세하게 밝혀져 있고 또 그들에게 임하게 될 형벌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 (3) 본장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책망하시기 전에 이방 나라들을 먼저 책망하신 이유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 (4)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의심을 깨달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 (5) 여기서 우리는 택한 자녀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참조, 요 3:16; 엡 2:4, 5).

(6)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된 자들에게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야 한다. 때로는 그 사랑이 배신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 말이다.

2. **㉠** 모압 족속에 대하여 설명하라 (1절).

- ㉠** (1) 모압 족속은 롯과 근친 상간의 죄를 저지른 롯의 큰 딸에게서 태어난 아들 모압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창 19:30-38).
- (2) 이 모압은 소알 근처의 산지에서 태어났지만 그 후손들은 소알 북쪽에 있는 모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생활하였다.
- (3) 암몬 나라와 마찬가지로 모압 나라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 그 속국으로 존재하였으나 (삼하 8:1, 2)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할 때 독립하였다.
- (4) 그리고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 (B. C. 885-874)에 의해 다시 정복되었으나 그 아들 아합 때 다시 독립하였다 (왕하 1:1; 3:5).
- (5) 이들의 말은 히브리 말과 비슷하며 포도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참조, 사 16:8-10). 또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때 양털을 많이 바친 것으로 보아 목장도 좋았음에 틀림없다 (참조, 왕하 3:4; 사 16:1).
- (6) 이 민족은 예로부터 독립 정신이 아주 강했으며 (참조, 사 16:6; 습 2:10),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참조, 민 22:4; 삿 11:17; 왕하 3:5-27; 사 48:1-44).

3. **㉠**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내릴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그 이유는 모압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 (灰)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 (2) 즉 모압이 죽은 에돔 왕의 분묘를 파헤쳐 그 뼈를 불태워 그 뼈가루로 회를 만들어 썼다는 것이다.
- (3) 그 이유로는,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에돔의 연합군과 모압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모압 왕이 전세(戰勢)가 불리해지자 분노한 왕은 자신의 맏아들을 자신의 신인 그로스(신 12:31)에게 번제로 바쳤다 (참조, 왕하 3:26, 27).
- (4) 그러므로 후일에 그 모압 왕이나 아니면 그의 계승자들 중 누군가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도운 에돔인들을 미워해 복수로 에돔인을 치고 왕의 뼈를 태워 회가루로 만들었다.
- (5) 이러한 행위는 특히 악독하고 보복적인 최악이었으며 신성하게 보존되어 온 묘실을 모독하는 것이었다 (참조, 왕하 23:16).
- (6) 이처럼 원수를 악으로 갚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 12:20, 21).
- (7) 그러므로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이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 (참조, 눅 6:27-36).

4. **㉠** 모압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2절)

- ㉠** (1) 모압은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다.
- (2) 이 말은 전쟁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군인의 모든 싸움에서는 요란함과 어지러움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 사 9:5).
- (3) 그러므로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압 족속들이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된다는 말이다.
- (4) 그 후 실제로 모압이 앗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나보폴라살(Nabopolassar, B.C. ? -605)에 의하여 망함으로써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참조, 사 15장; 렘 48장).

5. **㉠** ‘재판장을 떨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으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3절)

- ㉠** (1) 이것은 모압 왕국과 그 백성들이 더 이상 이 지상에 존속(存續)하지 못할 것을 의미한다.

- (2)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정부의 머리되는 지도 체제가 없이는 몸을 이루는 일반 백성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3) 즉 인간의 공동체에는 반드시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군주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재판장과 방백을 죽임으로 하여 모압이 더 이상 국가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이다.
- (4) 그러므로 이 정제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의 선포로서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들에게 큰 교훈을 준다(참조, 롬 12:19-21).

6. **㉠** 율법에 대한 유다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4절)

- ㉠** (1) 그들은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았다.
- (2) 즉 그들은 율법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율법을 도외시하였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았다.
- (3)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처럼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순결을 상실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 (4) 사실 종교의 부패만큼 무서운 죄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동시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에 대한 경외심 상실의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 (5) 우리는 어떠한가? 말씀을 우리의 마음 편에 새기고 그것을 철저히 준행하는 삶을 사는가? 물론 말씀의 이행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증거이므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만 한다. 그리하여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참조, 출24:7; 유1:3).

7. **㉠** 유다가 어떤 것에 미혹되었는가? (4절)

- ㉠** (1) 유다는 ‘그 열조의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 (2) 여기에서 ‘열조의 따라가던 거짓 것’이란 이방 우상을 숭배하던 조상들의 나쁜 악습을 유다가 그대로 따라갔다는 말이다(참조, 함2:18).
- (3) 이렇게 된 원인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 말씀에 대한 지식의 부재요 둘째, 악한 인간성 때문이다.
- (4)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유다가 범한 죄를 똑같이 우리도 범하게 되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에 든든한 뿌리를 둔 신앙을 소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도 미혹되지 않는다(참조, 딤후 3:14-17).

8. **㉠**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라는 귀절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6절)

- ㉠** (1)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공의가 완전하게 무너져 있음을 의미한다.
- (2) 즉 재판장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받고 의인을 정죄하고, 빚을 갚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을 종으로 판다는 뜻이다.
- (3) 이와 같이 조그만 이익을 위해 양심을 쉽게 굽힐 정도로 공의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에게 공의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한다(참조, 시 89:14; 뱀전1:17).
- (4)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살아야 한다. 이웃을 대할 때 편견이 없어야 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참조, 삼상 8:1-3; 눅 18:1-8).

9. **㉠** 타락한 이스라엘은 무엇을 탐내었는가? (7절)

- ㉠** (1) 저희들은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었다.
- (2)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말은 아무런 도움도 옹호자도 없는 참혹한 환경에서 빈곤으로

허덕이는 자들을 가리킨다.

- (3) 그러므로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었다'는 말은 아무런 보호자도 없는 과부나 고아의 티끌 같은 재산을 탐내어 탈취하였다는 의미이다.
- (4) 이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특별히 값있는 행위로 간주하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어긋나는 행위였다(참조, 시 14:1;72:12, 13;82:3, 4;113:7).
- (5) 이처럼 우리들도 가난한 자들을 도우기는커녕 그들의 가진 조그만 재산마저 탐낸다면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지르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참조, 삼하 12:1-6; 잠 15:27).

10. ㉠ '부자(父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란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7절)

- ㉠ (1)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행위, 즉 근친상간(近親相姦)의 죄를 의미한다.
- (2) 이러한 근친 상간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잘 알 수 있게 한다. 이는 이방인들에게서도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로서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해 있음을 보여 준다.
- (3) 이 음란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은 분명히 계명을 범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이다(참조, 출 20:14).
- (4)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특히 이 부분에서 순결을 지켜야 한다. 음란은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합리화되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음란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참조, 고전 6:13-20;엡 5:3;살전 4:3).
- (5) 이것은 또한 영적인 우상 숭배를 상징하기도 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곳에 마음을 둔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 순결을 상실한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사 8:33;렘 16:20;23:49).

11. ㉠ '모든 단 옆에서 전당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라는 귀절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8절)

- ㉠ (1) 이 귀절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탐욕에 대한 언급으로 그들이 가난한 자들에게서 빼앗은 것들로 자신의 만족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 (2) 여기서 '전당잡은 옷'은 겹옷을 지칭하는데 이것은 가난한 자들의 이블로도 사용되었다.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겹옷을 전당잡혔을 때, 그 옷은 밤이 오기 전에 그 사람에게 되돌려 주어야만 하였다(출 22:25;신 24:12).
- (3) 그리고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죄를 범한 자에게 중한 벌금을 부과(賦課)하여 부당하게 받은 벌금으로 자신의 육욕(肉慾)에 탕진하였다는 말이다.
- (4) 한결을 더 나아가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여 받은 벌금으로 포도주를 사서 그것을 성전 안에서 마셨으니 그들의 성결 생활에 대하여서는 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였다.
- (5) 이처럼 탐욕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의의 길로 빠지게 하며 타락한 삶을 살게 한다(참조, 딤후 6:10).
- (6) 그래서 성경은 '탐욕'을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였고, 또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참조, 눅 21:34;롬 13:13, 14;딤후 3:8;딤후 1:7).

12.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어떤 족속을 멸하였는가? (9절)

- ㉠ (1)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멸한 족속은 '아모리 족속'이었다.
- (2)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하기 이전의 가나안 땅에 살던 주민들로서(창 15:16), 이들은 거인처럼 키가 크고 강한 족속이었다(민 13:31-33;신 1:28).
- (3) 이 족속을 하나님께서 '뿌리까지 진멸'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자신이 직접 제거하심으로 그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당면한 어두움을 제거해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참조, 시 17:8; 20:1; 91:4; 107:14; 121:1).

13.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서 무엇을 세우셨는가? (11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세우셨다.
- (2) 여기에서 '선지자'란 특정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갓, 나단, 미가야, 엘리야 등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무엇이든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잘못을 꾸짖고 위험을 경고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전 14:3).
- (4)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기쁨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성도에게 전하며 잘못을 꾸짖고 어려움을 위로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답후 1:6-12).

14.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청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일으켰는가? (11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청년들 중에서 나시르인을 일으켰다.
- (2) 원래 '나시르인'의 히브리어 말은 <나지르>인데 이는 '성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다.
- (3) 즉 '나시르인'이란 특별한 거룩함의 신분으로 구별되는 사람, 또는 머리를 기르고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함으로써 스스로를 봉헌할 것을 서원한 사람을 가리킨다(참조, 민 6:2, 6-8, 12; 사 13:5, 7; 16:17).
- (4) 이 '나시르인'의 역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지자와 구별되지 않았다(참조, 삼상 1:11-28; 눅 1:13, 15)
- (5)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나시르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성별되었고 의롭다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성도'라고 담대히 불렀던 것이다(참조, 고후 1:1; 6:17, 18; 엡 1:1; 빌 1:1).
- (6) 따라서 우리의 삶은 거룩해져야 한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며 주의 모습을 닮기 위해 애써야 한다(참조, 엡 2:10; 4:1; 골 1:10; 살전 2:12; 요일 1:7; 요이 1:6; 요삼 1:3, 4).

15. **㉠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와 나시르인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12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 (2) 즉 나시르 사람으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나실인의 순수성을 파괴시켰고, 선지자들을 위협하여 바른말을 못 하게 만들었다(참조, 왕상 22:13-28; 호 9:8; 미 2:6).
- (3)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 가운데서 행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 빛에 반역하며 그 빛을 소멸시키기 위해 온갖 악을 다 행하였던 것을 의미한다.
- (4) 이들은 범한 죄악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선량한 신앙인을 의도적으로 타락하도록 만드는 것과 신자들의 정의의 외침을 막아 버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큰 죄악이라는 사실이다(참조, 행 4:16-21; 히 12:12, 13).

16. **㉠ '곡식 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라는 귀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13절)**

- ㉠ (1) 이 귀절에서 '누르리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이크>인데 의미는 '눌림을 당하다'는 수동의 뜻을 가지고 있다.
- (2) 그래서 본문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곡식 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누름같이 내가 너희

아래서 놀리고 있노라' 라고 할 수 있다 (KJ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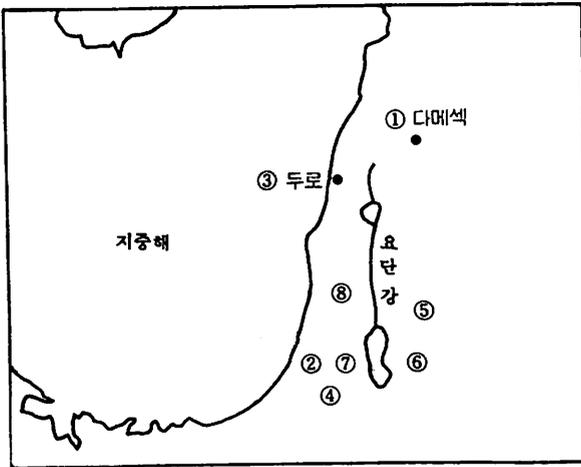
- (3) 이는 이스라엘의 죄가 무거운 짐이 되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견디지 못할 정도로 짓누르고 있다는 의미이다.
- (4)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며 음란한 세대로 인하여 마음속 깊이 근심하시며 슬퍼하신다는 사실이다 (참조, 시 95:10; 겔 6:9).
- (5) 그러므로 우리는 음란을 피하며 죄를 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참조, 고전 6:13-20; 살전 4:1, 3).

17. **Q** '도망할 수 없으며', '힘을 낼 수 없으며', '피할 수도 없으며', '설 수도 없을 것' 등의 말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14, 15절)

- A**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이스라엘이 도망가거나, 힘을 내어 대적하거나, 피하거나, 일어서 바로 쳐다보지도 못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 (2)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는 그들이 도망칠 시간도 없고, 도망칠 길도 찾지 못할 것이며, 도주를 시도할 힘이나 정신도 없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멸망하게 된다는 말이다 (참조, 시 33:17).
- (3) 이와 같이 범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시며 징벌을 내리신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참조, 신 32:34-41; 시 89:14).
- (4) 그러므로 주 안의 성도들은 이스라엘처럼 패역한 죄를 짓지 말고 늘 죄와 싸우기를 피흘리기까지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참조, 히 12:4).

지도자료

아모스가 예언하였던 나라들



- ① 다메섹 (1:3-5) ② 블레셋 (1:6-8) ③ 두로 (1:9, 10) ④ 에돔 (1:11, 12)
- ⑤ 암몬 (1:13-15) ⑥ 모압 (1-3절) ⑦ 유다 (4, 5절) ⑧ 이스라엘 (6-16절)

제 3 장 피할 수 없는 여호와와의 심판

단락구분 1-8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아모스가 예언하다 / **9-10**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게 하다 / **11-12** 이스라엘의 완전한 파멸을 예언하다 / **13-15** 베델의 운명에 대하여 예언하다

1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끄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온 족속을 쳐서 이끄시기를

2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였나니

3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4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5 창애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어졌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애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6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7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8 사자가 부르짖는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9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끄시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10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짐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11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1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 뱀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결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 뱀을 입으리라

13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14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15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아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판나리라 이는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1. ㉠ 본장의 개요를 설명하라.

㉠ (1) 본장은 2장에서 지적하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고 지각 없고 조심성이 없어 여러 가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징벌을 경고하시는 것이다.

(3)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인정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4) 이와 같이 우리들도 말씀을 통하여 잘못을 지적받을 때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각오해야 한다(참조, 대하 25:16; 히 12:25).

2. ㉠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1절)

㉠ (1)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의 족속(族屬)을 인도하여 내셨다.

(2) 여기에서 '온 족속'이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두 지

파를 합한 12지파를 가리키는 말이다.

- (3) 이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보다 독특한 민족이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았고, 부름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다.
- (4) 이와 같이 성도들도 주를 모르는 불신자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알았고 부름을 받고 선택되어 주의 백성이 되었다(참조, 눅 2:32).

3.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1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
- (2) 여기에서 '치다'라는 말은 '채찍 같은 것으로 친다'는 뜻으로 징계를 가리킨다.
 - (3)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하셨다는 의미이다.
 - (4)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私生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른길을 가며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이다(참조, 히 12:10, 11).

4. **㉠**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누구만 알았는가? (2절)

- ㉡** (1)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만 알았다.
- (2) 여기에서 '안다'라는 말은 '선택한다'라는 뜻이다. 즉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며 친숙한 자들로서 그들과 교제하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 (3) 따라서 '이스라엘 족속만 알았다'는 말은 여호와와 더불어 친밀함을 요청할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이다(참조, 신 9:4, 5).
 - (4) 이와 같이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택함을 입고 그 백성이 되었음을 알아 겸손하여야 한다(롬 3:24; 엡 2:8; 딤후 3:5).

5. **㉠**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2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철저히 보응하겠다고 하셨다.
-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 큰 윤리적 책임을 갖게 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참조, 롬 8:29; 살전 4:7).
 - (3)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성결 문제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간여(干與)하신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범죄를 엄하게 다루시는 것이다.
 - (4) 우리는 모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롬 9:6-13).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엄한 징계를 받게 되므로 매순간마다 성결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참조, 롬 6:13, 19; 벧전 1:15, 16; 딤후 2:3).

6. **㉠** '두 사람이 의합(意合)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3절)

- ㉡** (1) 이 말은 두 사람이 만일 견해 차를 일으키고 있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 (2)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다면 편안한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을 모독하고 당신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어 당신의 은총에 악한 행동으로 보답한 죄를 회개하고 개혁하여 하나님과 사화(私和)하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아니하신다.
 - (4) 그러나 현세의 성도들이 혹시 하나님의 은총에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

하여 하나님께 사화한다면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참조, 고전 1:9).

7. **㉠ 사자가 언제 포효(咆哮) 하는가? (4절)**

- ㉠** (1) 사자가 먹이를 덮칠 때 크게 소리지르며, 먹이를 잡고 난 뒤 만족감에서 소리를 지른다.
 (2) 여기서 '사자의 포효'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곧 아모스가 예언한 내용이다.
 (3) 따라서 본문이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사자가 소리지를 때 그만한 이유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를 하시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4) 이처럼 무슨 일이든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기독교에서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필연이고 어떤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탄생되기 때문이다.
 (5)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접하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참조, 눅 6:43-45).

8. **㉠ 새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5절)**

- ㉠** (1) 땅에 창애를 베풀어 놓아야 한다.
 (2) '창애'란 짐승이나 새를 잡기 위하여 만든 덫의 일종으로(호 5:1)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을 의미한다. 그리고 '새'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3)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 본문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 임하는 재앙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
 (4)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불의의 재난이 닥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우연한 것이 아니다. 재난은 하나님의 은밀한 목적에 따라 생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난을 당할 때 자신을 돌아보아 잘못된 것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참조, 왕상 8:37, 38; 렘 18:8).

9. **㉠ 성읍에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 (1) 성읍에서 나팔을 불었기 때문이었다.
 (2) 왜냐하면 나팔 소리는 성벽에서 지키는 자가 위협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3)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는 모든 경고를 농담 정도로 여기는 백성들의 무감각을 책망하고 있다.
 (4) 우리는 어떤가? 생활 가운데서 말씀을 통한 책망이나 여러 가지 징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책망을 소홀히 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10. **㉠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리셨는가? (7절)**

- ㉠** (1)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알리셨다.
 (2)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한 심부름을 시키시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비밀을 선지자에게만은 미리 알려 주시어 예언을 선포하게 하신다.
 (3) 이처럼 선지자를 통하여 징계가 임할 것을 미리 선포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4) 여기에는 당신의 자녀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참조, 출 34:6, 7; 요일 4:8, 16).

11. **㉠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는 귀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8절)**

- ㉠** (1) 이 귀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비밀리에 말씀하신 것을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공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 (2)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마 12:34). 즉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행 4:20), 그것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참조, 고전 9:16).
- (3) 이같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한다(참조, 행 5:42; 딤후 4:2).
- (4)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졌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명을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여야 하겠다(참조, 마 28:18-20; 막 16:15; 행 1:8).

12. ㉠ 하나님께서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9, 10절)

- ㉠ (1) 하나님께서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暴虐)과 겁탈(劫奪)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고 말씀하셨다.
- (2)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에서 온갖 폭력과 압제와 포학 그리고 겁탈이 자행되고 있음을 아스돗과 애굽으로 하여금 와서 보라는 것이다.
- (3) 이것은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너무나 타락한 것을 통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이방 세계에 알려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참조, 사 16:25; 마 25:1-13; 벧전 3:16).

13. ㉠ 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하여 쇠하여지고 궁궐이 약탈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11절)

- ㉠ (1) 이스라엘은 사면의 대적에 의하여 쇠하여지고 궁궐이 약탈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사면의 대적'이란 앗수르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의 군대가 사면 팔방으로 포위하여 공격해 올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 (3) 이 예언은 B. C. 734년에 앗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길르앗과 갈릴리를 침략하였고, 살만에셀 5세(Shlmaneser V, B. C. 727-722)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B. 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킴으로 이루어졌다(참조, 왕하 17:5-23).

14. ㉠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받은 이스라엘의 결과가 어떠하리라고 말씀하셨는가?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 뉘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결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 뉘을 입으리라'고 하셨다.
- (2) 여기서 '침상 모퉁이에나 결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이란 사마리아인들의 사치한 생활을 대변하여 주는 말이다, 그리고 '양의 다리'나 '귀 조각'은 극소수의 사람을 의미한다.
- (3) 따라서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전멸당할 것을 말하지 않고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참조, 사 11:11).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철저한 징계를 내리시지만 아울러 긍휼의 은총도 반드시 함께 베푸신다(참조, 말 4:1, 2, 6).

15. ㉠ 하나님께서 언제 베엘의 단을 벌할 것인가? (14절)

-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용하는 날'에 베엘의 단을 벌할 것이다.
- (2) 여기에서 '모든 죄'(2:6)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면

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를 의미한다.

- (3) 그리고 ‘보용하는 날’은 어떤 고정된 날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섭리가 결코 바뀔 수 없는 까닭에 그 형벌의 날이 필연코 오리라는 확실성을 내포하는 말이다.
- (4)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용하는 날’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필연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뜻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들도 생활 속에서 많은 죄악을 저지른 채 회개하지 않고 방치하여 둔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임하고야 말 것이다(참조, 호 5:9).

16. ㉠ 하나님께서 심판 날에 ‘벤엘의 단’에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셨는가? (1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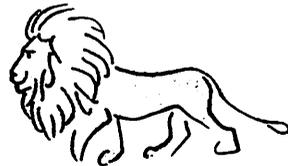
- ㉠ (1) 여호와 하나님께서 벤엘의 단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고 하셨다.
- (2) 이 ‘벤엘의 단’은 ‘하나님 집의 제단’이었는데(창 28:1-22), 여로보암 1세 이후에는 벤엘을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삼았다(왕상 12:26-33).
- (3) 이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우상 숭배의 더러운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4:4; 5:5)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다.
- (4) 예수께서도 직접 행동으로 이것에 대한 모범을 보여 주셨다. 즉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 분노하셨고 거기서 그들을 모두 내어 쫓으셨던 것이다(마 21:12; 막 11:15; 눅 19:45; 요 2:15, 16).
- (5)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자(고전 3:16).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성전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곧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했던 것이다(참조, 약 3:11; 4:8).

17. ㉠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치며 파멸시킬 것이라고 하셨는가? (15절)

- ㉠ (1) 여호와께서는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고 ‘상아 궁’과 ‘큰 궁’들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궁’은 복수로서 왕궁 뿐 아니라 부자들의 집들도 포함한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여러 ‘궁’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부자들의 사치한 생활을 조소하는 것이다.
- (3) 그러므로 본문은 귀족들의 호화스러운 사치의 죄악이 하나님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을 가리킨다(참조, 단 1:8, 10-16; 나 3:1-19; 계 3:14-17).
- (4) 물질이 많다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것이 바로 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돈을 쓰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다(참조, 눅 12:15).

본장의 요절

‘사자의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4절).



제 4 장 이스라엘의 깊은 타락

단락구분 1-3 가난한 자를 학대하므로 경고를 받다 / 4-5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다 / 6-11 하나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완고히 행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명령하다

1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2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3 너희가 성 무너진 데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 너희는 뽕엘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회생을, 삼 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5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8 두 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바들거리

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 내가 풍채와 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팻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 내가 너희 중에 염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 내가 너희 중의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쬐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13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 Q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였는지를 설명하라.

- A (1)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더 깊이 타락하여 그 정도가 자못 심각하였다.
 (2)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매우 학대하였고 궁핍한 자들을 매우 학대하였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는 죄를 지었으며, 영적인 순결을 잃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다.
 (3) 한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번 징계의 채찍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그 경고를 무시하기까지 했다.
 (4)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권고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집념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 무리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기필코 눈과 같이 회게 만드시는' (사1:18) 분이시다(참조, 요 10:28; 롬 8:30, 38, 39).

2. **㉠** '바산의 암소' 들이 저지른 죄는 무엇인가? (1절)

- ㉠** (1) 그들은 '가난한 자를 확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술을 가져다가 자기들로 마시게 하라'고 말하였다.
- (2) 여기서 '바산의 암소' 는 사치와 방종에 탐닉하고 있는 부자나 권세가들을 의미한다(참조, 사3:17-4:1; 32:9-12).
- (3) 이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스러운 자들이었고, 겉으로만 경건한척 하였고,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였다.
- (4) 그래서 그들은 돌보고 관심을 베풀어야 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탐욕을 만족시켰다.
- (5) 오늘날 교회 내에서 자신의 영리를 위하여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간혹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바산의 암소'와 같은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 (6) 그리고 우리는 혹시 자의건 타의건 간에 그런 행위들을 하거나 않는지 살펴보아야겠다. 한결음 더 나아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베풀지 않는 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하라(참조, 약1:22, 27; 2:1-13).

3.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죄악이 만연할 때에 무엇으로 맹세하였는가? (2절)

- ㉠** (1)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셨다. 즉 이 맹세를 하는 근거가 자신의 거룩함이라는 말이다.
- (2) 그런데 자신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셨다는 말씀은 두 가지로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
- (3)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이스라엘의 악독함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다.
- (4) 둘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완전하듯이 이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 (5) 여하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하여 하나님께서 철저하고 완전한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는 맹세를 말한다(참조, 잠11:21; 젤7:4; 호8:13).
- (6) 이 맹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신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만드시고야마는 분이시다(참조, 행9:11-22).

4. **㉠**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이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2절)

- ㉠** (1)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고리로 끌려갈 것이며 남은 자들은 낚시로 끌려가리라고 하셨다.
- (2) 여기에서 '갈고리로 끌려가다' 는 말은 바산의 소들이 코를 갈고리에 케인 채 끌려가듯이 코를 꿰어서 잡혀갈 것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비석에 포로들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복자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 (3) 그리고 '남은 자들이 낚시로 끌려가리라' 는 말은 정복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잡히지 않고 피해 다니던 자들이 낚시에 고기가 잡히듯 그들의 땅에서 잡혀서 끌려가리라는 의미이다.
- (4)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앗수르 군대의 갈고리에 꿰어서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갈 것을 보여 주는 말이다.
- (5) 이와 같이 우리들도 많은 회개치 않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때에는 상상도 못 할 비참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참조, 애3:1; 습1:17; 계14:10).

5. **㉠** 여호와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어찌 되리라고 말씀하였는가? (3절)

- Ⓐ (1)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성 무너진 데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고 하였다.
- (2) 즉 전쟁으로 인하여 성들이 모두 무너지고 사람들은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다가 하르몬이라는 곳에 버리워지리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하르몬'이 어떤 지역을 말하는지 알 수 없고 그 원어의 뜻도 알 수 없다.
- (3) 이와 같이 게으르고 패역한 이스라엘이 온갖 향락과 사치의 죄악을 범하였지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면 모든 것들이 재처럼 사라질 것이다(참조, 단1:8, 10-16; 계3:14-17).
- (4)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향락과 이 세상의 권세만 자랑하는 죄악을 범한다면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던 모든 부귀 영화가 재처럼 사라질 것임을 명심하자(참조, 삼하22:43; 욥30:19; 42:6; 시18:42).

6. ⓐ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곳은 어디인가? (4절)

- Ⓐ (1) 이스라엘은 베엘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였다.
- (2) 여기에서 '베엘에 가서 범죄하다'라는 말은 본래 베엘은 아랍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붙였던 곳(창12:8)이나, 그들이 그곳에서 바알 우상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다는 뜻이다(호8:6, 11).
- (3) 그리고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 강을 건넌 것을 기념한 장소였고(수4:19-24),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 곳이었으며(수5:10),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 선지 학교의 중심지(왕하2:1; 4:38)였으나, 호세아와 아모스 시대에 와서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다(호 4:5; 9:15; 12:11).
- (4) 이같이 하나님을 섬기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은 크나큰 죄악임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
- (5)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이와 동일한 죄악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전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다(참조, 마5:23, 24; 눅11:39-42; 요2:13-16).

7. ⓐ 이스라엘이 아침마다 무엇을 하였는가? (4절)

- Ⓐ (1) 이스라엘은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다.
- (2) 이것은 매일 아침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을 말한다(민28:3).
- (3) 그런데 그들은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으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다운 상번제(常燔祭)로 드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그 일을 행하였다.
- (4) 우리 성도들도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이 어떤 의식으로만 끝나 버린다면 참다운 예배라고 할 수 없다(참조, 요 4:23).

8. ⓐ 이스라엘이 삼일마다 무엇을 하였는가? (4절)

- Ⓐ (1) 이스라엘이 삼 일마다 '십일조'를 드렸다.
- (2) 여기에서 '삼 일마다 십일조'를 드렸다는 것은 삼 년마다 드린 십일조(신14:28; 26:12)를 근거로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다.
- (3)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조롱하기 위하여 풍자적으로 한 말이다.
- (4) 즉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 3년에 한 번씩 하던 십일조를 3일에 한 번씩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드리는 십일조이므로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말이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십일조일지라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닐 때 하나님은 이를 외면하여 버리신다(참조, 말1:7-9; 마6:1-6).

9. ⓐ 이스라엘은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무엇을 하였는가? (5절)

- Ⓐ (1) 이스라엘은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렸다.

- (2) 여기에서 '수은제'란 화목제의 한 종류로 예기치 않은 축복이나 이미 받은 구원과 은총에 대해 드리는 감사의 제사이며, 누룩을 넣지 않은 제물만을 드려야했다(레7:12-14).
- (3) 그러므로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미 성결되지 못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레22:20-25).
- (4) 하나님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다(롬12:1). 흠있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결과를 낳는다는 말이다(참조, 신17:1;말1:14).
- (5) 그런데 '거룩한 산 제사'는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롬6:13),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고(롬6:16),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벧전1:15).

10. **㉠** 이스라엘은 무엇을 소리내어 광포(廣布)하였는가? (5절)

- ㉠** (1) 이스라엘은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였다.
- (2) 여기에서 '낙헌제'란 화목제 혹은 평안의 한 종류이다. 특히 이 낙헌제는 특별한 축복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이다(참조, 레22:18;신12:6).
- (3) 그러나 이스라엘은 소리내어 낙헌제를 광포하여 외식적(外飾的)으로만 제물을 드림으로 마음에 없는 위선적인 제사를 자랑하기를 좋아하였다.
- (4) 이 같은 위선적 행동은 하나님 앞에 가증된 것이며, 크게 책망받을 일이다(마6:1-6).
- (5)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사람 앞에서 외식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면 큰 책망을 받게 된다(마23:15;눅12:1).

11.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읍에 내린 첫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6절)

- ㉠** (1)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는 성읍들에 내리신 첫번째 재앙은 '흉년의 재앙'이었다.
- (2) 본절에서는 이것을 '이[齒牙]를 한가하게 하는' 재앙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흉년으로 말미암아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 (3)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그를 섬기게 하려는 것이었다.
- (4) 오늘날 세계 도처에 흉년으로 인하여 굶어 죽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도 어쩌면 패역한 이 세대의 죄악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창12:17;계18:4-8).

12. **㉠** 하나님의 첫번째 재앙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한가? (6절)

- ㉠** (1)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흉년의 재앙을 당하고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다.
- (2)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패역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였고 여전히 죄짓는 생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 (3)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잠언 기자의 말처럼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지만'(잠4:19)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다(잠12:1;히12:11).
-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거나 싫어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신자의 바른 자세이다(참조, 잠3:11, 12;12:1).

13. **㉠** 이스라엘에 임한 두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7, 8절)

- ㉠** (1) 패역한 이스라엘에 가뭄의 재앙이 임했다. 이 가뭄은 추수기 3달 전에 임했다.
- (2) '추수하기 3달 전에 내리는 비'는 소위 늦은 비로 2월 하순과 3월 초순에 내리는데 이 비는 밀과 곡식이 영그는 데에 매우 중요한 비이다.

- (3) 그리고 이 지역의 추수는 4월 하순에 시작되어 대부분 5월과 6월에 끝난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가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 (4) 그런데 이 지방에는 물이 아주 귀하여 마을과 성읍에는 개천과 시내 물이 마르더라도 먹을 수 있도록 저장하는 시설을 해 놓아 물이 혼한 우기에 물을 저장하였다.
- (5) 이렇게 물 사정이 어려운 지역에 기근이 임한 결과가 8월에 잘 표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인가?

14. **㉠** 이스라엘이 가뭄의 재앙으로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치셨는가? (9절)

- ㉠** (1)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재(風災)와 감부기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치셨다.
- (2) 여기에서 ‘풍재’란 ‘말라 죽는 것’(枯死)을 의미한다. 즉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에 의하여 곡식이 타 죽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창41:6, 23; 욥27:28; 호13:15; 은 4:8).
- (3) 그리고 ‘감부기’란 일종의 ‘늑균병’으로서 차가운 비가 내린 후 뜨거운 해벌이 쪼이면 곡식이 타게 되어 중국에 가서는 이삭이 누렇게 되고 썩어 버리는 병이다(참조, 신 28:22; 왕상 8:37).
- (4) 이 무서운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림으로 그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신 것은 어떤 가운데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된 것이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참조, 렘 31:3).

15. **㉠** 팥종이로 인한 재앙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9절)

- ㉠** (1) 팥종이들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모두 갉아먹었다.
- (2) 여기에서 ‘팥종이’란 메뚜기의 한 종류로서 때를 지어 다니며 식물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운다(참조, 욥1:4).
- (3) 이것은 하나님의 단계적인 징벌로서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적어져도 깨닫지 못했고, 가뭄으로 작물이 말라 죽어도 깨닫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아예 식물을 다 먹어 치우는 메뚜기를 동원하여 모든 식물을 없앤 것이다.
- (4) 이와 같이 팥종이를 통해서 다 먹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식량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거두어 가버리셨다는 뜻이다.

16. **㉠** 하나님께서 보내신 네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10절)

-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양식을 다 거두어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열병(染病)과 전쟁의 재앙을 내리셨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육신을 쳐 열병에 들게 하였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도록 하셨다는 말이다.
- (3) 그리하여 죽은 자가 많았고 살아 남은 자가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그 시체들이 오랫동안 매장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진영에서 악취가 그들의 코를 찢러 건디기 힘들 정도였다.
- (4)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모진 고통과 환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욥 38:23; 시 119:143; 계 2:22).

17. **㉠** 하나님께서 성읍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11절)

-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읍을 무너뜨림으로 그들은 불붙는 가운데서 땀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다.

- (2)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겪는 동안 가옥들은 불에 타 쓰러지고 백성들이 거의 죽음을 당하며 간신히 살아 남은 자들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울린 나무 조각처럼 볼품 없이 변했다.
- (3) 이와 같이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멸망당한 그 모습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당할 처참한 상태를 예표한 것이다(계2:22).

18. **㉠ 다섯 번에 걸친 재앙을 당한 이스라엘의 최종 반응이 어떠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11절)**

- ㉠** (1) 그 많은 재앙을 당하였으면서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 (2) 성경 본문의 '내게로'는 보통 전치사인 <엘>이 아니라 강한 의미를 가진 <아드>로 '거기서 내게까지'의 뜻이므로 한 목표를 향하여 전력을 다해 달리는 것을 말한다.
- (3)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그들이 재앙으로 인하여 감정적인 후회는 하였으나 완전히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의지적인 회개는 못 하였다는 의미이다.
- (4) 이와 같이 우리들이 죄악을 범하고 재앙을 만날 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는 정도로 그치고 만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요 8:33-44; 9:39-41; 살후 1:8, 9).

19. **㉠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예비하라고 하셨는가?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셨다.
- (2) 이 말은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의미가 아니다. 여기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예비하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 (3) 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참조, 살후 1:8, 9).
- (4)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신 30:1-3), 죄에서 떠나야 하며(렘 7:3-7), 겸손(은 1:1-17)과 기도의 삶(왕하 19:14-36; 대하 20:5-30)을 살아야 한다.

20. **㉠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어떤 분이신가? (13절)**

- ㉠** (1)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분이시다.
- (2)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지으신 분이시다(참조, 욥 38:6, 7; 골 1:16).
- (3) 둘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대상 28:9; 렘 12:3).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속속들이 아시고(시 44:21)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다(고 후 4:6).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한다.
- (4) 셋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천지를 운행하시며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신다(참조, 신 32:10; 시 37:28; 습 3:17).
- (5) 넷째, 교만한 자를 꾸짖으시고(시 119:21), 싫어하시며(잠 6:16, 17), 물리치시는 분(약 4:6)이시다.
- (6) 이와 같은 무한하신 전능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항상 주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빌 2:12).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 | 의 말씀이니라

1. **㉠** 하나님의 구체적인 권면의 내용을 설명하라.

- ㉠** (1) 본장에서 하나님께서는 4장 말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권면에 대하여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을 요구하셨다.
- (2) 먼저 성별되었던 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을 밝히신 후에,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행위들을 꾸짖으시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셨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을 경우에 포로로 잡혀가는 비운(悲運)을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하셨다.
- (4) 이처럼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징계와 책망 그리고 권면 등을 통하여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사랑의 주님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 (5)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권면하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신 26:16; 삼상 15:22; 롬 6:17).

2.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하셨는가? (1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지으신 애가(哀歌)를 들으라고 하셨다.
- (2) 이 애가는 이스라엘 왕국의 비참한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슬픔의 노래로서 그들의 완전한 멸망에 대한 비통한 예고였다.
- (3)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패역할 때는 가차없이 멸망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서는 슬퍼하시면서 끝까지 돌아올 것을 권고하신 것은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 (4)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쏟으시는 당신의 사랑도 이처럼 지극히 심을 알라(참조, 렘 31:3; 롬 5:8; 엡 2:4).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3. **㉠** 아모스 선지자는 누가 엎드려졌다고 슬퍼하였는가? (2절)

- ㉠** (1) 아모스 선지자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진 사실을 슬퍼하였다.
- (2) 여기에서 ‘처녀 이스라엘’이란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한 번도 정복되지 않았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 주는 시적(詩的) 표현이다(사 23:12).
- (3) 그러므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는 귀절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말이다.
- (4) 이 예언은 B. C. 722년 앓수르의 살만에셀 5세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멸망당함으로 성취되었다(참조, 왕하 17:23; 18:10, 11).

4.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결과가 어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천 명이 나가던 성읍이 백 명만 남고 백 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열 명만 남으리라’고 하였다.
- (2)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철저하게 되어질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살륙(殺戮)되고 극소수의 백성만 남게 되는 것이다.
- (3) 이 극소수의 백성들을 남겨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없애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참조, 창 2:16, 17; 출 19:5).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면서도 당신의 뜻을 위하여 긍휼을 아올려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참조, 애 3:22; 눅 15:20; 롬 9:15).

5. **㉠** 하나님께서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해결책은 무엇인가? (4절)

- ㉠** (1)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셨다.
 (2) 여기 ‘찾으라’로 번역된 <다라쉬>는 보통 찾는다는 뜻보다 강하다. 원래는 선지자나 지도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나 그의 판단을 구할 때 쓴 말이다(참조, 출 18:15; 삼상 9:9; 왕하 3:11).
 (3) 그 뜻은 점차 강화되어 하나님께 향한 열심이나 그의 주시는 은사보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나타낼 때 이 말을 사용하였다.
 (4) 그리고 ‘살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인데 이는 보통 살아간다는 뜻보다 더 함축성 있는 말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풍부한 생활을 한다는 뜻이다.
 (5) 따라서 본귀절은 신자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말하고 있다(참조, 시 34:10; 69:32; 119:2; 사 55:6; 마 6:33; 눅 15장).

6.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권고하셨는가? (5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벧엘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권고하셨다.
 (2) 여기에서 ‘벧엘과 길갈 그리고 브엘세바’는 우상을 숭배한 중심지였다(참조, 4장 **㉠** 6; 창 21:33; 26:23, 24; 46:1).
 (3) 그러므로 ‘벧엘과 길갈 그리고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던 구습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는 의미이다.
 (4) 오늘의 우리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엡 4:22). 그리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엡 4:24). 이것이 주께서 신자들에게 원하시는 새 생활이다(참조, 엡 4:25-32; 골 3:5-11).

7. **㉠**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집을 무엇으로 멸하시리라고 하였는가? (6절)

- ㉠** (1)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집을 불로 멸하시리라고 하였다.
 (2) 여기에서 ‘요셉의 집’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다. 북왕국의 가장 유력한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이 요셉이었기 때문이다.
 (3) 그리고 ‘불’은 하나님의 진노어린 심판을 가리킨다(참조, 히 12:29).
 (4) 그러므로 ‘요셉의 집을 불로 멸한다’는 말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지경에 이른다는 의미이다.
 (5)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심판을 받아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됨을 명심하자(참조, 계 19:2).

8. **㉠**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어떠한 자로 불렀는가? (7절)

- ㉠** (1)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을 ‘공법을 인진(菌蔞)으로 변하여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불렀다.
 (2) 여기에서 ‘공법’이란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할 공의로운 법을 가리킨다. 또한 ‘인진’이란 매우 쓴 풀을 가리킨다.
 (3) 그러므로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란 정의를 지켜 법을 집행해야 할 지도자들이 정의를 버리고 쓰디쓴 풀처럼 오히려 사회에 불법을 행하고 있음을 책망하는 말이다.

9. **㉠**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표현하였는가? (8절)

- Ⓐ (1)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묘성(昴星)과 삼성(參星)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白晝)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 라고 표현하였다.
- (2) 이는 천지 만물을 지배하시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와 사례를 제시하여 주는 말이다.
- (3) 첫째, 하나님은 모든 별들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천지 만물 그 어느 것도 그의 손에 지음 받지 않은 것이 없는데 이는 그의 위대성을 잘 나타내어 준다(참조, 욥 9:9;38:31).
- (4) 둘째,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늘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다(참조, 욥 36:24-33; 사 40:12-17).
- (5) 셋째,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다’는 말은 ‘노아 홍수’와 같은 맥락에서 쓰여진 말로서 여기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참조, 창 18:25; 시 20:6; 벧전 2:23; 계 16:7).
- (6)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와 같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믿고 있는가? 말로써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는 살아 계신 만유의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잠 3:6; 히 11:6).

10. ⓐ 아모스 선지자는 강한 자가 어떻게 되리라고 하였는가? (9절)

- Ⓐ (1) 아모스 선지자는 강한 자가 홀연히 패망하겠다고 하였다.
- (2) 여기에서 ‘강한 자’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에 버금가는 국력을 자랑하였다(호 13:1).
- (3) 그러므로 ‘강한 자가 홀연히 패망하겠다’는 것은 군사력이 강하고 부강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망하리라는 말이다(호 10:7, 8).
- (4) 이것은 아무리 국방력이 강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지 않으시면 그러한 것들은 아무 쓸모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
- (5)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고백을 하였다(시 127:1).
- (6) 우리 나라의 국방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야만 평화적인 조국 통일이 가능하다. 아무리 최신 무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지 않으면 헛된 일임을 명심하여야 한다(참조, 신 32:10, 11; 시 17:8; 20:1; 37:5; 121:1, 2).

11. ⓐ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미워하며 싫어하였는가? (10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였다.
- (2) 여기에서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의 지도자들은 성문 위에서 재판하며 명령을 내렸다.
- (3) 따라서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였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지도자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밀시했다는 뜻이다(사 29:21).
- (4) 원래 충고는 듣기 싫은 것이지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충고는 아프더라도 받아들여야 하며 훈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참조, 잠 4:1, 13; 5:1; 6:20).

12. ⓐ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11절)

- Ⓐ (1) 이스라엘이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稅)를 취하였다.
- (2) 즉 부유한 지주들이 가난한 소작인들에게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부당하고 불공평한 방

법으로 재물을 착취하였다는 것이다(신 23:19).

- (3) 이와 같이 율법을 예사로 범하고 무시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재물에 모든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 (4) 따라서 주를 믿는 성도들도 세상의 재물에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법을 예사로 범하는 죄를 짓게 될 것이다(참조, 마 18:9; 막 8:18; 롬 11:8).

13.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무엇을 안다고 하셨는가?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重)함’을 안다고 하셨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악한 행위를 아신다는 말씀이다(시 7:9; 11:4; 139:23; 렘 11:20).
- (3) 이것은 인간의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사악한 생각을 품어도, 또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죄악을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이다(렘 11:20; 17:10).
- (4) 이와 같이 우리들이 어떤 생각과 은밀한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일이 없음을 알자(왕상 8:39; 시 139:1).

14. **㉠** 악한 때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행하는가? (13절)

- ㉠** (1) 악한 때에 지혜로운 자는 잠잠하게 있다.
- (2) 여기서 악한 때란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지 않고 정의가 짓밟히며 가난한 자가 착취당하는 때를 의미한다.
- (3) 이런 때에 지혜로운 자들은 침묵을 지키는데 이는 불의한 자들에게 바른말을 하여 화를 당하기 보다는 차라리 불의한 일을 그대로 견디어 내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더 현명한 처신이기 때문이다.
- (4) 실제로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법정에서 원수들의 강박한 도전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을 지키셨다(참조, 마 26:62, 63; 27:14; 눅 23:9).

15. **㉠**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4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2) 즉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는 말이다.
- (3)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사 1:11-15) 오직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다(참조, 욕 31:4; 요 9:31).
- (4)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활 속에서 의롭고 선한 일들을 행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참조, 고전 3:13-15; 딤후 2:21; 3:17).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엡 2:10).

16. **㉠**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말했는가? (15절)

- ㉠** (1)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고 말하였다.
- (2)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선을 추구하며 다시 하나님의 공의가 이행이 되는 사회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요구이다.
- (3) 즉 하나님의 공의가 성도들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기준이 되어야 하며 과정과 결과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시 89:14; 벰전 1:17).
- (4) 공의를 행하는 삶이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말하며(엡 4:1; 골 1:10; 살전 2:12),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말하고(요일 1:7), 사랑을 행하는 삶을 말한다(엡 5:2).

17. **㉠**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하셨는가? (15절)

- ㉠** (1) 여호와께서는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하셨다.
 (2) 여기에서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다.
 (3) 그러므로 ‘요셉의 남은 자’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살아 남은 극소수의 북이스라엘의 백성을 가리킨다(사 6:13; 10:21-23).
 (4) 따라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회개하는 백성을 지키신다는 뜻이다(합 3:2).
 (5) 이와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어 지켜 주실 것이다(욘 6:24; 시 12:7).

18. **㉠**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면서 울겠다고 하셨는가? (16절)

- ㉠** (1)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과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면서 울겠다고 하셨다.
 (2) 여기에서 ‘광장과 모든 거리’는 이스라엘 전지역을 가리키며, ‘오호라 오호라’는 말은 그들의 슬픔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절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3)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권면을 거부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시지만 그들이 그 권면을 무시할 때 처절한 진노의 채찍을 드신다는 것에 유의하자(참조, 레 10:1-6; 대하 19:2; 34:24, 25; 36:16; 시 78:19-21).

19. **㉠**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누구를 불러다가 울게 하라고 하셨는가? (16절)

- ㉠** (1) 하나님께서는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哀哭)하게 하며 울음군을 불러다가 울게 하라고 하셨다.
 (2) 여기에서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한 것은 농촌의 슬픔을 나타낸 것으로 포도원의 소출도 크나큰 슬픔 때문에 기쁨이 되지 못하리라는 의미이다(17절).
 (3) 또한 ‘울음군’이란 직업적으로 울어 주는 자를 가리키는데 보통 여자들이었다. 즉 슬픔을 최대한으로 나타내기 위해 샅을 받고 울어주는 사람들을 말한다(렘 9:17; 마 9:23).

20. **㉠** 모든 포도원이 울음 바다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7절)

- ㉠** (1) 하나님께서 모든 포도원 사이로 지나시기 때문이다.
 (2) 아모스 선지자는 출 11장에서 모세가 기술한 ‘하나님께서 통과하신 사건’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 같다.
 (3) 그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를 통과하셨는데(4절) 그러자 그의 진노가 애굽 전역에 퍼져 나갔고 그 결과 애굽에 큰 슬픔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과 같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여 준다.
 (4)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헛된 자만심을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이와 같이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지나간다면 우리들도 깊은 슬픔에 빠지고 말 것이다(참조, 사 29:2).

21. **㉠**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날을 사모하였는가? (18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날’을 사모하였다.
 (2) 왜냐하면 이날은 메시아의 날로서 원수인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며, 그들에게는 해방과 환희의 날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3) 이와 같이 그들은 여전히 타락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것

만을 외식하였기 때문에 해방과 환희의 날이 아니라 파멸과 어두움의 날이 된다(참조, 마 3:7-10).

(4)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선택된 백성임을 자랑만 하고 죄악을 행한다면 여호와 의 날이 심판과 어두움의 날이 될 것이다(참조, 시 1:5; 전 12:14).

22. ㉠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꿈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라는 귀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19절)

- ㉠ (1) 이 귀절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형벌에서 피할 수 없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2) 즉 악인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결국 구원을 얻을 줄로 알고 있지만 결코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3) 이와 같이 그들이 재앙을 피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은 파멸되어 버릴 것이다(참조, 9:2).
 (4) 따라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피하고자 노력한다면 그것은 헛될 것이며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시 37:38; 사 1:28).

23. ㉠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멸시하고 기뻐하지 않으셨는가? (21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절기(節期)’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저희 성회(聖會)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2) 즉 이 말은 외식하는 자들의 거창한 종교 의식을 미워하신다는 뜻이다.
 (3)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당신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겉치레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멸시하신 것이다.
 (4) 그러므로 주 안에 사는 성도들도 참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경외하지 않고 의식과 위선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멸시하고 미워하신다(참조, 사 1:11-17).

24.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드릴 때 받지 않으셨는가? (22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燔祭)나 소제(素祭)를 드려도 받지 않으셨다.
 (2) 여기에서 ‘번제’와 ‘소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행위로써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이다(출 20:24; 32:6; 사 20:26; 왕상 3:15).
 (3)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신 것은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목적이 참다운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과 화해를 위함이 아니라 위선과 가증스러운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이었다.
 (4) 따라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 의식과 형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결코 받지 않으신다(참조, 사 1:15; 요 4:24).

25. ㉠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돌아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는가? (22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살진 희생의 화목제(和陸祭)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고 하였다.
 (2) 여기에서 ‘화목제’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을 회복하기 위하여 드리기 보다는 화목한 사실에 감사하는 제사이다.
 (3) 그리고 화목제의 종류에는 지나간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감사제가 있고, 장차 받을 축복의 조건으로 드리는 서원제가 있으며, 기도의 보조물로 드린 자원제가 있다(레 3:1-17; 7:11-21; 7:28-34).
 (4)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화목제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그들의 제사가 진정으로 감사하거나 서원하고 또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선으로 가득 찬 것이었기 때문이다(참조, 잠 15:8).
 (5) 오늘날 주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서원하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어떤 체면 유지를 위해 위선으로 드린다면 그 예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많은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벧후 2:16; 계 18:5).

26. ㉠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은 무엇인가? (23절)

- ㉠ (1)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과 비파를 연주하는 것'이었다.
- (2) 여기에서 '비파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대상 16:4; 23:5; 25장).
- (3)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래와 비파 소리를 원치 않은 것은 그들이 신앙과 회개의 표현에서가 아니라 쾌락과 젖어 노래부르고 술로 인해 흥겨워 비파를 통جت기 때문이다(참조, 호 9:1-5).
- (4) 이와 같이 현대의 젊은이들이 술집에서 젓가락을 두드리면서 복음 성가를 부르고 술에 만취하여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는 것을 간혹 볼 수 있는데 이런 찬양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참조, 호 7:3).

27. ㉠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는 귀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24절)

- ㉠ (1) 이 귀절의 의미는 물이 수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듯 공법과 정의도 자유롭게 시행되게 하라는 뜻이다.
- (2) 즉 재판관과 통치자는 법을 옳게 시행하여 편파(偏頗)와 뇌물로 인하여 공법과 정의의 흐름이 막히지 않게 하라는 말이다.
- (3)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자연스럽게 시행되는 사회를 만드는 책임을 우리가 부여받았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셨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법을 올바르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자들의 삶이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인 것이다(참조, 마 5:13, 14).

28. ㉠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드린 제사 의식은 어떠하였는가? (25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 중에 제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였다.
- (2) 이는 광야에서의 방랑 기간 중이었으므로 제대로 제물을 가져올 수가 없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열심이 식어 있었던 것이 더 큰 원인이었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께 올바른 의무를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참조, 롬 5:5, 8; 엡 2:4; 요일 2:15-17).

29. ㉠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우상의 형상(形象)을 지고 갈 것인가? (26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구'와 '기운'을 만들어 지고 갈 것이다.
- (2) 여기에서 '식구'이란 숙곳(Sukkot)으로 소리날 수 있는데 이는 '천막' 또는 '움집'이란 뜻이다. 즉 이방 신의 사당을 가리키는 말이다.
- (3) 그리고 '기운'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을 숭배하기 위해서 세운 신상(神像)을 가리킨다.
- (4) 따라서 '식구와 기운을 만들어 지고 간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부터 숭배하던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뜻한다(참조, 레 17:7; 신 4:19; 사 43:23).
- (5)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뒤에도 여전히 구습을 좇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죄된 옛 습성을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참조, 고후 5:17; 엡 4:22-24)

30.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27절)

-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2)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앗수르 군대에 사로잡혀 그 살던 땅으로부터 추방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3) 이 예언의 말씀은 호세아 9년에 앗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감으로 이루어졌다(왕하 17:6).

연구자료

요성(昴星)과 삼성(參星)

① 요성(Pleiades) : 우리말로 '묘성'이라고 풀이하는 영어 단어 'Pleiades'는 '황소자리'의 일곱 별인 '플레이아데스 성단(星團)'을 가리킨다. 그런데 정작 '묘성'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키마>는 헬라이어(플레이아도스)와 동일한 단어로써 '큰 덩어리' 또는 '작은 개체가 여러 개 모여 하나의 커다란 구성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란 뜻을 지니고 있을 뿐 정확히 어느 한 별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이 '황소 자리'(the Bull)가 아니면 '큰 개자리'(Canis Major)와 관계된 별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같은 추정은 뒷받침될 만한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Vulgate) 역은 <키마>를 '대각성'(大角星, Arcturus) 또는 '황소자리' 중의 군성(郡星)인 '히아데스 성단'(Hyades)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KJV나 Living Bible 등과 같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키마>를 '칠성'(the Seven Stars)으로 번역하였다. 한편 묘성에 대한 언급은 본장 8절 외에도 욥 9:9; 38:31에 나온다.

② 삼성(Orion) : 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크셀>은 '강한 자', '거인'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별자리의 모양과 잘 어울리는 말이다. 왜냐하면 <크셀>이 가리키는 '오리온 자리'(the Orion)는 사냥군과 같은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인들은 이 별과 관계된 재미있는 신화를 갖고 있는데 그 신화의 요지(要旨)는 다음과 같다. 보이오티아(Boiotia)라는 지방에 한 거인 사냥군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플레이아데스(Pleiades)라는 여신을 사랑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 사냥군을 피하여 하늘로 도망갔다. 훗날 이 사냥군은 아르테미스(Artemis)라는 여신에게 살해당하는데 그는 죽어서도 플레이아데스를 못잊어하여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고 말았다. 한편 히브리인들은 그리스인들이 이 같은 신화를 창출(創出)해 내기 이전부터 '삼성'과 관련지워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약한 존재임을 증거하고 있기도 하다(참조, 욥 38:31-33).

제 6 장 안일주의에 빠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

담당구분: 7-6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교만과 방종 / 7-11 이스라엘의 멸망과 피멸의 예언 / 7-13-14 미련한 이스라엘의 완전한 황폐

1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하므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2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나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나

3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4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켜며 양 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5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6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7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8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불이리라 하셨느니라

9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10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 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와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11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시므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12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13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14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1. ㉠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기로 작정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은 더 이상 들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다.
- (2) 즉 그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과 우월성을 자랑하였고, 현상에 만족하였으며, 철저하게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안일주의에 빠져 버렸던 것이다.
- (3) 이처럼 '안일주의'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크게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그것은 신자들을 타락하게 만들 뿐 아니라 들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다(참조, 렘 23:17; 애 28:1-9; 미 3:5; 살전 5:3).
- (4)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날마다 꽃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인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안일'은 '타성'을 놓고 '타성'은 무기력한 '죽은 믿음'을 낳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참조, 빌 3:14; 히 12:1, 2; 약 2:17).

2. **㉠**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는가? (1절)

- ㉠** (1)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 (2) 여기서 ‘시온에서 안일한 자’는 장차 자신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쾌락만을 즐기던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 (3) 그리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로서 이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는 자들이었다.
- (4) 아모스 선지자가 이들에게 화 있다고 한 것은 그들의 사치와 낭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낭비와 사치가 가져온 영적인 안일 때문이다.
- (5) 즉 당시 유다의 지도층들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일락(逸樂)에 빠져 영적 안일의 상태에 이르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스스로 든든하다고 생각하면서 죄책과 심판에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다.
- (6)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의 영적 안일을 철저히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 (7)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영적 안일에서 일어서야 한다. 우리 개개인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 (벧전 2:9)으로 영적인 지도자들이기 때문이다.

3.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와 어디를 가보라고 하셨는가? (2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大)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고 하였다.
- (2) 여기 나오는 ‘갈레’는 니므롯이 시날 땅에 건설한 도시였는데(창 10:10) 디글랏 빌레셀 3세(B. C. 744-722)에 의하여 앗수르 제국에 합병되었다.
- (3) 그리고 ‘대하맛’은 수리아의 수도로서 매우 번영하였으나 B. C. 720년에 앗수르의 사르곤 2세(B. C. 722-705)에 의하여 망하고 말았다.
- (4) 또한 ‘가드’는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의 하나로서(수 13:3; 삼상 17:4) 다윗 때에는 블레셋의 수도였는데(수 13:3; 삼하 8:1) 수리아의 하사엘(B. C. 841-798)에 의하여 정복되었다(왕하 12:17).
- (5)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난공 불락(難攻不落)처럼 보이는 그 도시들을 파괴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 (6)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땅히 벌을 내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보류한 채 다른 나라를 회생시켜 가면서까지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시려고 하셨다(참조, 눅 13:1-5).

4. **㉠**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졌는가? (3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포한 자리로 가까이한 것은 흉한 날이 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 (2) 이 ‘흉한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심판의 날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불의를 마음대로 행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 (3)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날이 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아모스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조소하였으며 계속하여 타락한 삶을 살았던 것이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제 곧 임할 주의 재림을 믿지 않고 멀다고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참조, 마 10:23; 히 10:37; 약 5:8; 벧후 3:8-10).

5. **㉠**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생활상에 대하여 기술하라(4-6절).

- ㉠ (1) 첫째, 그들은 극도로 나태한 자들이었다.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다’(4절)는 말에서 그들의 게으름과 무위 도식(無爲徒食) 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2) 둘째, 그들은 ‘양 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으면서’ 쾌락을 즐겼다. 즉 그들은 먹기를 탐하였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딤후 3:4) 자들이었다.
- (3) 셋째, 그들은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는 삶을 살았다. 이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쾌락을 추구하였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악기를 제조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쾌락에 흥을 돋우기 위하여 악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 (4) 넷째,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는’ 삶을 살았다. 여기서 ‘대접’은 종교적 의식에 사용되던 커다란 그릇을 말하는데(출 27:3; 왕상 7:40; 왕하 12:13)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채 성별된 그릇을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이다(참조, 렘 35:5).
- (5) 뿐만 아니라 ‘기름을 몸에 바르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름을 발랐는데 그들은 이것을 사치의 도구로 삼았다(참조, 왕상 10:10; 겔 27:22).
- (6) 다섯째, 이런 타락한 생활을 즐기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쇠퇴해 가고 몰락해 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는 하등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 (7) 이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국가의 중대한 위기 앞에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안일주의에 빠져 사치와 향락을 즐겼던 것이다.
- (8)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이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매순간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여 생기는 욕심들을 철저히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딤후 4:10; 약 4:4; 벧후 1:4; 요일 2:15-17).

6. ㉠ 안일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7절)

- ㉠ (1)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고 말씀하셨다.
- (2) 즉 이스라엘이 앗수르의 침략을 받아 멸망할 때 그들은 다른 백성들보다 먼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떠들던 향락의 생활이 끝나고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 (3) 이와 같이 지도자들의 범죄는 하나님의 더 큰 책망을 받게 된다.
- (4)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이 너희는 선행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행이 되지 말라’고 말하였다(약 3:1).

7. ㉠ 하나님께서 맹세의 근거를 어디에 두셨는가? (8절)

- ㉠ (1)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근거로 맹세하셨다.
- (2) 자신을 근거로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에 근거하여 맹세하셨다는 말이다(렘 51:14).
- (3)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근거로 맹세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더러운 죄를 참지 않으시고 진노하시겠다는 말로서, 반드시 벌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하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준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셨다(벧전 1:16).

8. ㉠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싫어하고 미워하여 대적에게 붙이셨는가? (8절)

- ㉠ (1)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들을 대적에게 붙이셨다.

- (2) 이곳에서 야곱의 영광'은 히브리어로 <계은 야아콥>으로서 '야곱의 자랑거리'라는 뜻인데, 이것은 그들이 열국 중에서 유명한 자라고 간주하는 것, 즉 성전, 제단, 제사장직,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랑거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 (3) 그리고 '그 궁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방위를 위해서 구축된 요새를 말한다.
- (4) 따라서 '야곱의 영광과 그 궁궐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는 말은 그들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랑만 일삼고 요새를 지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멸시를 받으므로 (5:21) 대적의 침략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탈취되리라는 의미이다.
- (5) 이와 같이 주 안에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들의 자랑만 일삼는다면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참조, 렘4:20;15:13;49:32).

9.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진노의 결과는 무엇인가? (8-10절)

-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에게 붙이시고, 그 남은 자들도 모두 죽게 하실 것이다.
- (2) 이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진노하신다는 말로서 전쟁을 통하여 재앙을 내리시고 살아 남은 자들을 전염병으로 치시겠다는 의미이다.
- (3) 이와 같이 한 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면 어느 누구도 그 진노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 (4) 따라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참조, 유1:3).

10. **㉠** 그 집 내실에 있던 자와 대화하던 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10절)

- ㉠** (1) 그 집 내실에 있던 자와 대화하던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너무나도 철저히 노하고 계시므로 감히 그의 이름을 불러서 화를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 (3) 이것은 그들이 미련하여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으면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우러나는 행위인 것이다 (참조, 잠19:3).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채찍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만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참조, 욕1:22;시14편;호7:11).

11. **㉠** 진노하신 여호와께서 명하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11절)

- ㉠** (1)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질 것'이다.
- (2) 즉 방백들의 궁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면치 못하여 가난한 자의 오두막이라도 해도 예외 없이 아름다움과 견고함을 상실하여 속히 무너질 것이라는 말이다.
- (3)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말씀 한 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시148:5) 하나님께서 단 한 마디 명령으로 그들을 파멸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2. **㉠** 이스라엘은 무엇을 기뻐하였는가? (13절)

- ㉠** (1) 이스라엘은 '허무한 것'을 기뻐하였다.
- (2) 여기서 '허무한 것'은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 (3) 즉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 이래로 최강의 국력을 자랑하게 된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믿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이것을 '허무한 것'이라고 표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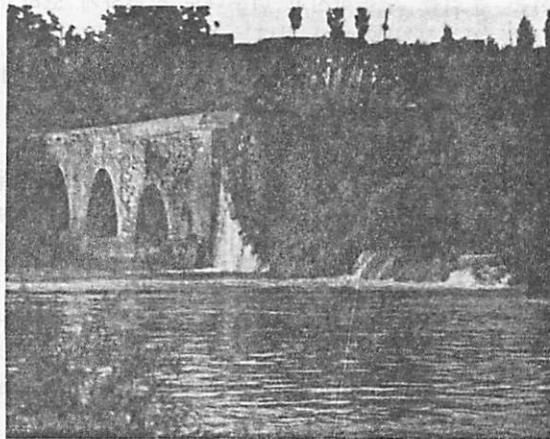
- (4)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 127:1).

13. **Q**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학대를 당하리라고 했는가? (14절)

- A**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학대를 당할 것이라고 하였다.
 (2) 여기에서 ‘하맛’은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국경의 도시 (민 34:8)이다.
 (3) 따라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학대당하리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그 죄로 인하여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4)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에 주목하자.
 (5) 이와 같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사람이 우리에게 고난의 도구가 될 때는 그들을 일으켜 우리를 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수중에 들어 있으며 그 손의 채찍이기 때문이다 (참조, 삼하 16:5-13).

화보자료

하맛(Hamath)의 풍경. 교각 옆에서 돌고 있는 수차(水車)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앞에 흐르고 있는 강은 하맛을 통과하는 오론텐스 강(Orontes River)이다.



‘하맛’은 이스라엘의 북방에 있는 국경 도시(민 34:8)였으나 오늘날은 시리아(Syria)의 도시로서 ‘하마’(Hama)로 불리워지고 있다. 그런데 이 하맛과 더불어 언급되고 있는 ‘아라바 시내’(Arabah Brook)는 이스라엘 남방의 국경 지역이었으니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14절)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전국토가 유린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 7 장 아모스의 환상과 아마샤의 대항

단락구분 1-3 황충(蝗蟲)의 환상을 보다 / 4-6 삼키는 불의 환상을 보다 / 7-9 다림줄의 환상을 보다 / 10-13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베엘에서 쫓아내려고 중상(中傷)하다 / 14-17 아마샤의 중상에 대하여 답변하다

1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2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3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5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6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7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8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9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훼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10 때에 베엘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하니 그 모든 말이 이 땅이 건될 수 없나이다

11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녕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12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13 다시는 베엘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14 아모스가 아파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뿔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15 양 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16 이제 너는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17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와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엮드러지며 네 땅은 줄 띄워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녕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1. ㉠ 아모스의 환상과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살펴보다.

- ㉠ (1) 본장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그것을 이스라엘에 예언할 때 베엘의 제사장 아마샤의 방해를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이 환상은 구체적으로 황충, 삼키는 불꽃 그리고 다림줄 이 세 가지인데 이는 모두 이스라엘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재앙을 가리킨다.
- (3)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 환상을 이스라엘에 예언하자 당시 베엘의 궁중 제사장이던 아마샤가 아모스를 반역자로 몰아 왕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려 하였다.
- (4) 이에 대하여 아모스는 선지자로서 행한 자신의 활동이 의로운 것임을 확신하고 아마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게 된다.
- (5)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만약 아마샤가 진실된 제사장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징계의 환상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점

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아모스를 정면으로 대적하였다.

(6)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개인과 가족에게 혹은 이웃이나 국가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됨을 알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통회 자복해야 한다(참조, 시 51:10-13; 행 8:22).

2. **㉠** 아모스 선지자가 본 첫번째 환상은 무엇인가? (1, 2절)

- ㉠** (1) 아모스가 본 첫번째 환상은 ‘황충’인데 이것은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땅의 모든 풀을 다 먹어 버렸다.
- (2) 이 황충의 환상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이 황충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이것을 외국 군대로 보는 것이다.
- (3) 어느 편의 해석을 취하든 그 근본 의미는 변함없지만 대체적으로 전자의 해석이 더 타당하고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4)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왕이 풀을 벤 후’라는 귀절에 주의를 집중시켜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물을 모두 없애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일부분을 남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참조, 애 3:22, 23). 이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이다(참조, 엡 5:20; 살전 5:18).

3. **㉡**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간구하였는가? (2절)

- ㉡** (1)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라고 간구하였다.
- (2)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을 예언하면서 책망하던 그가 돌연 이 말을 한 것은 비록 자신이 재앙을 예언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바라고 기뻐하는 자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려는 의도였다.
- (3) 이처럼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선포적 임무와 아울러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중보적 임무를 동시에 갖고 있다.
- (4)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두 선지자이다(벧후 1:21). 따라서 우리는 말씀의 선포자로서 또 중보자로서의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자성(自省)하여 늘 이 직분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고전 4:2; 계 2:10).

4. **㉢** 아모스 선지자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3절)

- ㉢** (1) 아모스 선지자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그들을 사하여 주셨다.
- (2) 여기에서 ‘뜻을 돌이키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계획을 변경하신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황충의 재앙은 그치게 되었다.
- (3) 이것은 선지자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었다. 얼마나 놀라운가? 이처럼 열심 있는 기도는 효능이 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요일 5:14)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대하 7:14; 요일 3:22). 그것도 구하는 것 이상의 풍성한 응답을 받게 된다(왕상 3:7-14; 대하 1:7-12).
- (4)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15년간 더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던 것이 그 좋은 예이다(왕하 20:1-11).
- (5)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매일 체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5. **㉣** 아모스 선지자가 본 두번째 환상은 무엇인가? (4절)

- ㉣** (1) 아모스 선지자가 본 두번째 환상은 ‘불의 환상’인데 이 불은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가

지 먹으려 하였다.

- (2) 여기에서 ‘불’은 첫번째 재앙보다 훨씬 강한 재앙을 의미한다. 그리고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였다’는 말은 비유적인 말로서 그 재앙이 몹시 극심할 것을 가리킨다.
- (3)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온 도시가 불타 폐허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불과 칼은 언제나 함께 다니기 때문이다.
- (4) 또한 이 사건은 대종말(大終末) 때에 모든 악한 자들이 이 땅으로부터 파멸당하게 될 환난을 뜻하기도 한다(참조, 사 66:15, 16; 벰후 3:7, 10-13).

6. ㉠ 아모스 선지자가 본 세번째 환상은 무엇인가? (7, 8절)

- ㉠ (1) 아모스 선지자는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신 환상이다.
- (2) 여기서 ‘다림줄’은 완전히 끈고 굽지 않은 줄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한다(참조, 왕하 21:13; 습 1:16; 4:10)
- (3) 그리고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은 진리로 견고하게 세운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 표현이기도 하다.
- (4) 또한 ‘주께서 담 곁에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시는’ 것은 헐어 버리고자 하시는 것인데 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모습을 나타낸다.
- (5) 이 다림줄의 환상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찌기 여러 번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지 않고 더욱 타락하여 갔기 때문이다.
- (6) 이처럼 주를 믿은 우리들이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닫지 못하고 어그러진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채찍을 맞게 됨을 명심하자(참조, 민 26:9, 10; 렘 30:14).

7. ㉠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9절)

- ㉠ (1) 하나님의 재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훼파(毀破)되고’ 하나님께서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는 것’이다.
- (2) ‘이삭의 산당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벤엘과 단(왕상 12:29) 그리고 길갈에서 우상을 섬기던 신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참조, 왕상 3:2; 22:43; 요 4:22).
- (3)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소들’도 마찬가지로 이삭의 산당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 (4)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는 것’은 전쟁을 통하여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5) 따라서 하나님의 이 재앙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황폐화’라고 말할 수 있다(참조, 미 3:12; 왕상 12:29, 31).
- (6) 이와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여 진심의 회개를 하지 않을 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기억하여 이런 미련한 결과를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참조, 왕상 8:37, 38; 시 91:10; 계 18:4; 22:18).

8. ㉠ 벤엘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이스라엘 왕에게 고소한 내용은 무엇인가? (10절)

- ㉠ (1) 벤엘의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가 여로보암 왕에게 ‘모반(謀反)을 행하였다’고 고소하였다.
- (2) 당시 아마샤는 벤엘에서 우상을 모시는 제사장 중 우두머리였다. 그는 아모스가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예언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 직접적인 공박을 하였기 때문에 아모스를 대단히 미워하여 중상(中傷)하게 되었던 것이다.
- (3) 역사를 통하여 볼 때 언제나 거짓된 종교인들이 바른말 하는 참신앙인들을 미워하여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렘 28:10, 11; 고후 11:1-15; 딤후 3:8).

- (4)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자들이 분명코 있다는 말이 된다.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도 익히 알고 있는 바가 아닌가?
- (5)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자들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거나 없는지 살피려야 한다.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자를 싫어하거나 모함하며, 자신에게 바른 충고를 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도 바로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9. **㉠**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여 한 말의 내용이 어떠하다고 아마샤는 고소했는가? (11절)

- ㉠** (1) 아마샤는 아모스가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녕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는 말을 했다고 고소하였다.
- (2) 그는 아모스의 말을 완전히 곡해하였다. 그는 아모스의 다른 일면은 왕에게 고하지 않았다. 즉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위해 어떻게 간구하였으며, 그 간구로 두 심판(1-6절)을 돌이켰고, 계속하여 기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왕에게 알리지 않았다.
- (3) 또한 그는 이 심판의 경고가 조건적이었다는 사실도 왕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모스는 그들이 만약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멸망을 면할 수 있다고 수차례에 걸쳐 확인하였던 것이다.
- (4)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여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할 사람들을 파멸의 구렁으로 이끄는 자들이 많다. 말세가 가까와 올수록 이러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다(참조, 마 24:11; 딤후 4:1-3; 딤후 1:14, 15; 4:3, 4).
- (5)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곡해하는 자들을 잘 분별하여 그들을 가까이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 자신도 진리를 잘못 해석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롬 16:17, 18; 요 일 4:1; 유 1:23; 계 22:18, 19).

10. **㉠**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어떤 위협을 하였는가? (12, 13절)

- ㉠** (1)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벰엘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위협하였다.
- (2) 아마샤가 이렇게 아모스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된 이유는 그가 왕을 움직여 아모스를 죽이거나 추방함으로써 사역을 못하게 하려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 (3)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반대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격렬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하게 마련이다(참조, 스후 1:2-6; 요 3:19, 20; 8:12-47; 행 7:54-60; 16:16-24).
- (4) 혹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반대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반대와 어려움이 더욱 심하여져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이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행 9:23, 24; 13:50, 51; 14:6-20; 23:12-15; 고후 11:32, 33; 딤후 3:11).

11. **㉠** 아마샤는 어떤 구실로 아모스에게 벰엘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는가? (13절)

- ㉠** (1) 아마샤는 벰엘이 왕의 성소요 왕의 궁이라는 구실로 그곳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 (2) 여기서 아마샤는 벰엘에서 시행되는 예배가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왕위를 가지고 증명하려고 한다. 즉 왕의 명에 의하여 벰엘이 합법적인 예배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왕을 쳐서 예언할 수 없었다.
- (3) 그러므로 그 어느 사람도 왕의 칙령으로 확정되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제반 의식을 타파할 수 없으며, 논쟁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 (4) 오늘날 교회 내에 주께서 제정하신 것 외에 어떤 의식도 절대성을 가질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은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의식에

절대성을 부여하여 진리의 바른길이 꺾여져 버린다면 이는 크나큰 잘못된 것이다(참조, 마 12:11, 12; 막 7:11-13).

12. **㉠** 아마샤의 공박에 대하여 아모스는 무엇이라고 답변하였는가? (14, 15절)

- ㉠** (1) 먼저 그는 자신이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는 단지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培養)하는 가난한 농사꾼임을 밝혔다.
- (2) 다음에 그는 양 떼를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직접 소명을 받았음을 이야기하였다.
- (3) 아모스가 이 답변을 한 의도는 자신의 의지나 소원으로 말미암아 그가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소명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강하게 개입되어 있음을 밝히려는 데 있었다.
- (4) 그는 선지 학교의 일원도 아니고 예언하기 위하여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므로 그의 예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임에 틀림없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사명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 (5) 신약 시대의 사도들도 원래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었다(행 4: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주(主)로부터 참소명을 받았기 때문이었다(참조, 마 28:19, 20; 행 1:8; 2:1-4).
- (6) 우리도 진리를 증거할 때 아모스처럼 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때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고전 1:27)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확고한 소명을 가지고 담대하여야 한다.

13. **㉠** 아마샤의 대적에 아모스는 무엇이라 말하였는가? (16, 17절)

- ㉠** (1) 아모스는 아마샤에게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娼妓)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줄 띄워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녕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고 말하였다.
- (2) '네 아내가 창기가 된다'는 말은 외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강제로 몸의 순결을 빼앗기게 된다는 말이고,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진다'는 말은 그 자식들 역시 적에 의하여 살해되고 만다는 것을 가리킨다.
- (3) 그리고 '줄 띄워 나누인다'는 것은 적들이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여 나누어 가진다는 말이고, '본토에서 떠난다'는 말은 포로로 끌려가게 됨을 이른다.
- (4) 이러한 예언은 아마샤가 왕에게 아모스를 고발한 내용(11절)과 동일한데 아모스가 이렇게 반복하여 말하는 것은 그 예언이 확실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 (5)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도 주의 종이 죄를 지적하고 경고할 때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주의 종을 대적하고 모함한다면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게 클 것이다(참조, 요 9:39-41; 살후 1:8, 9).

본장의 요절

'양 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15절).



제 8 장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긴박한 심판을 선언하시다

단락구분 1-3 아모스에게 과일 광주리의 환상을 보이시다 / 4-6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다 / 7-10 그들이 멸망을 선포하시다 / 11-13 말씀의 기갈(飢渴)을 주시다 / 14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다

1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 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2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 실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3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4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의 가난한 자를 망케 하려는 자들이 이 말을 들으라

5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밭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겔을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6 온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켈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7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8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

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9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케 하며

10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굶은 베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 듯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11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립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를 거리며 여호와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13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14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단아 네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의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1. ㉠ 이스라엘의 종말적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라.

㉠ (1)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과일 광주리의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종말의 비참함을 말씀하여 주셨다.

(2) 아모스는 이 종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를 그들이 슬픔을 당할 것이며,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갈하며,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3) 그런데 그들이 이런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된 근본 원인이 바로 자신들의 불의라고 아모스는 힐책한다.

(4) 그 불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와 안식일을 싫어하였으며, 부정한 돈벌이를 할 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불의를 행하였던 것이다.

(5)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엄하신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본장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다.

(6)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불의한 부분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고전 13:6).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아야 하고(롬 6:13), 불의에서 떠나야 하며(딤후 2:19), 불의한 자와 명예를 함께 하지 말아야 한다(고후 6:14).

2. **Q**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 주셨는가? (1, 2절)

A (1) 하나님께서 '여름 실과 팥주리'의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 주셨다.

- (2) 여기서 '여름 실과'는 완전히 익은 실과로서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실과가 익어 할 때가 된 것같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르익어 하나님의 심판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다.
- (3)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마다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
- (4)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자비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 (마 18:21) 하여 주는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참조, 눅 17:3, 4; 엡 4:32).

3. **Q**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는가? (2절)

A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 (2)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 뿌리가 깊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이 되어졌다는 것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지만(참조, 느 9:30)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더욱 사악하여질 때는 가차없이 치시는 분이시다(참조, 레 10:1-6; 대하 34:24, 25).
- (4) 따라서 주를 믿는 백성들도 주의 사랑과 용서하심만 믿고 죄짓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면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7:8).

4. **Q** 언제 궁전의 노래가 애곡의 노래로 변할 것인가? (3절)

A (1)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의 노래로 변할 것이다.

- (2) 여기에서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한 '여호와와 날'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생각한 대로 대적들이 환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만연되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그들 자신이 오히려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5:18).
- (3) 이와 같이 '여호와와 날'에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영광을 누리야 할 성도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닌가?
- (4) 이와 같이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 날도 분명히 성도들이 누리야 할 최고의 기쁨의 날인 것만은 틀림없으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범죄한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비극의 날이 될 것이다(참조, 눅 21:23).

5. **Q**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어떤 자라고 표현하였는가? (4절)

A (1) 아모스는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의 가난한 자를 망케 하려는 자'로 이스라엘을 표현하였다.

- (2) 이는 탐욕으로 인하여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서 재물을 탈취하고(2:6, 7) 노예로 삼아(참조, 렘 22:13), 부려먹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 (3)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말씀과 전적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참조, 신 10:18; 14:29; 약 1:27). 이런 자를 성경에서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하였다(잠 14:31).
- (4) 따라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아야 될 위치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착취한다면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참조, 잠 21:13; 22:22; 29:7, 14).
- (5)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

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 25:40).

6. Q '월삭' 과 '안식일' 에 대하여 설명하여 보라(5절).

- A (1) 이스라엘의 집단 생활과 종교적 활동은 주로 농경 생활의 기본적인 주기적 순환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민간력에 근거하여 행하여졌다. '월삭' 은 초생달의 출현으로 표시되는 매월 첫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종교적인 절기를 말한다.
- (2) 이 절기는 여러 가지 점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비슷하였다. 예를 들면 일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였으며(왕하 4:23; 사 1:13), 성전의 제사에는 특별히 구별된 제물을 바쳤는데 이는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보다 더 훌륭한 제물이기도 했다(민 28:9-15).
- (3) 그리고 '안식일' 은 최초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로서(출 20:10, 11) 이날에는 매대 행위가 금지되었고(느 13:15-20) 오직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과(민 28:9, 10; 절 46:3) 육신의 휴식을 취하는 것(창 18:4)이 허락되었다.
- (4)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제도를 제정하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케 하고(창 2:2, 3),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케 하는 데 있었다(신 5:12-15).
- (5)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세상 사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월삭과 안식일을 무성의하게 지켰으며 그 제도 자체를 싫어했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밝히고 있다.
- (6) 즉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날을 하나님께 경건케 보내기 보다는 육신의 일을 더 좋아하여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다는 말이다(참조, 말 1:13).
- (7) 이와 같이 사업을 하는 성도들도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육신의 탐욕으로 생업에도 모한다면 하나님의 책임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롬 8:5, 6, 12; 고전 5:5).

7. Q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거래 질서는 어떠하였는가? (5절)

- A (1)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사고 팔 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해 저울을 속였다.
- (2) 여기에서 '에바'란 곡식을 파는 자들이 곡식의 양을 잴 때 사용하는 기구였으며 1에바는 22℔이다.
- (3) 또한 '세겔'이란 물건을 사는 자가 무게를 재어 돈을 내어 줄 때 사용하는 화폐 단위인데 1세겔은 약 11.4g이다.
- (4) 따라서 '곡식을 사고 팔 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였다'는 말은 한 마디로 정당하지 못한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 (5) 이와 같이 바르지 못한 상거래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참조, 신 25:13, 14; 요 12:6).
- (6)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사업이나 모든 상거래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생활 자세이다. 만약 사회에 부정과 불법이 난무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독교인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참조, 마 5:13-16).

8. Q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어떻게 하였는가? (6절)

- A (1)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를 은으로 샀으며 신 한 켈레로 궁핍한 자를 샀으며 잿밀을 팔았다.
- (2) 즉 그들이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속이고 착취함으로써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었고, 나아가 그들은 그렇게 착취한 돈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사서 종으로 만들었다는 말이다(참조, 레 25:39).
- (3) 뿐만 아니라 그들은 먹지 못하는 밀의 찌꺼기를 가난한 자들에게 속여 파는 악랄한 짓을 하였다. 이런 행위를 아모스는 질책하였다.
- (4)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현상을 종종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는 기업들이 부지 기수(不知其數)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런 사회적 부조리를 척결(剔抉)

하는 데에 최선의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9. **㉠** 여호와께서는 어디를 가리켜 맹세하셨는가? (7절)

㉠ (1)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었다.

(2) 여기에서 '야곱의 영광'이란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야곱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은 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다(참조, 호 5:5;7:10).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거듭 맹세하신 것은(4:2;6:8) 이스라엘의 가증한 죄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하려는 데 있었다.

(4)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직한 삶을 살지 않을 때 그 죄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참조, 신 32:34-41).

10. **㉠**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꺾박한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7절)

㉠ (1)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소위(所爲)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2)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조물에 관여하시는 상관성을 강조한 말이다.

(3) 왜냐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모함하고 착취하는 죄악은 단지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에 있는 것만은 아니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에도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참조, 창 1:27, 28). 그들이 지은 죄악은 인간들에게도 죄악인 동시에 하나님께 범한 죄악인 것이다.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여 패역한 그들의 죄악을 잊지 않고 반드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참조, 시 62:12; 잠 24:12; 렘 17:10; 겔 18:30; 마 16:27; 고후 5:10; 계 20:12).

11. **㉠** 하나님께서는 땅이 어떻게 되리라고 하셨는가? (8절)

㉠ (1) 하나님께서는 땅이 떠다고 하였다.

(2) 여기에서 '땅이 떠다'는 말은 지진으로 땅이 흔들린다는(1:1) 의미도 있으나, 또 다른 의미로 사회의 무질서를 가리킨다.

(3) 즉 그들이 받을 형벌로 인하여 사회가 극도로 혼란하여진다는 말이다.

(4) 이와 같이 부정과 불법이 난무하는 사회는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극도로 혼란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사회가 혼란의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통회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12. **㉠**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가? (8절)

㉠ (1) 온 땅이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고 예언하였다.

(2) 이 말은 물이 땅에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는 비유이다.

(3) 즉 애굽에 있는 나일 강 물이 범람하여 온 지면을 휩쓸며 남긴 것이 없어지듯이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 없애신다는 의미이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 의해 모두 땅에서 사라져 고통 중에 매인 바 될 것이다(삼상 2:9; 욥 15:20; 21:17).

13. **㉠**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9, 10절)

㉠ (1) 먼저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2) 이것은 B. C. 763년 6월 15일 소아시아 지방에서 있었던 일식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지막 심판에 관한 징조다.

(3)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굶은 베로 허리를 동이게 하여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獨子)의 죽

음을 인하여 애통하 듯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끈고한 날과 같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 (4) 이 말씀은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때 모든 기쁨이 슬픔과 고통으로 변하게 되며 이러한 것이 잠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되어질 것을 의미한다.
- (5)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는 자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넘치게 됨을 본귀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참조, 욥 15:20; 잠 15:6; 딤후 3:1).

14. **㉠**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기갈을 이스라엘 중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가? (11, 12절)

- ㉠** (1)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갈을 보내실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어디서도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 (2) 말씀을 듣지 못해서 생기는 영적 기갈은 양식이나 물이 없어 생기는 육체적인 기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 (3)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와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게' 된다.
- (4)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이다(신 8:3; 마 4:4).
- (5) 따라서 이 말씀의 기갈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간 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으므로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6) 우리는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말씀은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고(시 107:20), 우리를 자유케 하며(요 8:32),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딤후 3:16).
- (7)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 (시 119:105) 이라고 고백하였다.
- (8)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평안할 때 무시하여 버린다면 이스라엘처럼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의 기갈로 고통당할 때가 올 것이다(참조, 잠 29:18; 사 8:20, 21).

15. **㉠** 영적 기갈이 이스라엘에 임하는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총각은 어떻게 되는가? (13절)

- ㉠** (1)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고 말씀하셨다.
- (2) 이 말은 이스라엘 중에 임한 말씀의 기갈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 준다.
- (3) 즉 이스라엘의 가장 활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처녀와 젊은 남자들이 이 기갈을 못 견디어 지쳐 버리고 피곤하게 될 정도이니 다른 사람들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는 말이다.
- (4) 따라서 말씀의 기갈이 이토록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영적 충만의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한다(참조, 행 17:11; 벰전 3:1).

16. **㉠**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14절)

- ㉠** (1)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단아 네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의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을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서 '단'과 '브엘세바' 지방은 산당이 있었던 곳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일삼던 곳이다(5:5).
- (3) 그리고 '맹세'는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 방법 중의 하나였다(참조, 레 6:3; 느 10:29; 렘 7:9; 12:16).
- (4) 이러한 우상 숭배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롬 1:21-23)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금지하셨다(출 20:4; 34:17; 레 26:1; 요일 5:21).

- (5)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 (6)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들과 같은 죄를 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참조, 고전 5:11; 10:14; 요일 5:21).

화보자료

눈물을 담는 용기(容器). 가족 중에 상(喪)을 당하였을 때 애통의 눈물을 담아 죽은 자의 무덤에 소장하던 고대의 용기이다.



아모스 때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Jeroboam II, B. C. 793-753)의 통치하에 비교적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물질적인 면과는 달리 도덕적, 윤리적 사회 기강은 피폐하기 그지 없었으니 간음, 살인, 강도, 착취, 사치, 향락 등과 같은 사회악이 도처에 만연되어 있었다(4-6절; 2:6-8; 3:15; 4:1; 5:7-12; 6:3-6). 이러한 죄악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10절)라고 선언하셨다.

제 9 장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

단락구분 1-4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다섯번째 환상 / 5-6 전능하신 능력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 7-10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베푸사는 하나님의 능력 / 11-25 이스라엘 정래의 회복

1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등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
 으로 부셔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
 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륙하리니 그중에서 하
 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2 저희가 파고 움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널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리울 것이며

3 갈멜 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
 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
 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4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
 서 칼을 명하여 살륙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
 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
 하리라 하시니라

5 주 만군의 여호와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무
 릿 거기 거한 자로 애룡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
 로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
 아지게 하시는 자요

6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
 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7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
 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나 내가 이스
 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감들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8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

며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
 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와 말씀
 이니라

9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10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
 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
 인은 칼에 죽으리라

11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
 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12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
 켜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
 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
 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14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것을 돌
 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
 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일
 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15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
 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 ㉠ 본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설명하라.

㉠ (1) 본장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 (2) 첫째, 악을 미워하시며 (시 5:5, 6), 그 악을 보수하시는 (신 32:34-41) 하나님의 속성이 1-4절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 (3) 둘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언급되어 있다 (5, 6절).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속성으로 이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 니이다' (렘 32:17) 라고 고백하였다.
- (4) 셋째, 범죄한 이스라엘에 진멸의 예언을 하시면서도 그 가운데서 거룩한 일부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장래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묘사되어 있 다 (7-15절).

- (5) 물론 이외에도 여러 속성들이 나타나 있지만 이 세 가지 속성들이 대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6) 이러한 속성들 중 보편적 속성에 속하는 첫번째와 세번째 것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고 본받아야 되는 속성이다.
- (7)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악을 미워하며, 죄와 싸우기를 피흘리기까지 하며(히 12:4),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살전 5:22).
- (8)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요 13:34), 하나님과(마 22:37, 38) 그리스도를(요 8:42)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2. **㉠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무엇을 부수어 버리라고 말씀하셨는가? (1절)**

- ㉠** (1) 하나님께서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숴져서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고 아모스에게 말씀하셨다.
- (2) 이것은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는 성전을 무너뜨려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몰살시키라는 말로서 종교적 멸망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
- (3)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신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교회부터 심판하실 것이며 교회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패망하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다.
- (4) 그러므로 주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심판 날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깨닫고, 항상 그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생활함이 필요하다(참조, 사 10:12; 렘 25:29; 겔 9:6; 마 24:9, 10; 벰전 4:17).

3. **㉠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에 깔려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을 어찌하리라고 하셨는가? (1절)**

- ㉠** (1) 주께서는 성전이 무너질 때 살아 남은 자를 '칼로 살륙(殺戮)하리니 그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 (2) 이것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 없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는 의미이다.
- (3) 이와 같이 우리들도 범죄를 하고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피할 수 없는 주의 진노로 무참하게 멸망되고 말 것이다(참조, 겔 17:15; 마 23:33; 살전 5:3).

4. **㉠ 하나님은 악인들을 철저히 다스리시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2, 3절)**

- ㉠** (1) 악인들이 주를 피하여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취하여 널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리울 것이요, 갈멜 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찾아낼 것이요,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뱀에 물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 (2) 즉 죄인들이 자기들 보기에 가장 안전하고 깊다고 생각하는 음부와 보이지 않는 저 먼 곳 하늘과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높은 갈멜 산과 깊숙하고 은밀한 바다속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으리라는 말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어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여 당신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도록 살아 역사하신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항상 주의 능력의 범주 내에서 살고 있음을 알고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시 119:3; 128:1; 행 18:25).

5. **㉠ 하나님께서 바다 밑에 숨어 있는 악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 '악인이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뱀'이란 히브리어로 <나하쉬>인데 육지의 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바다 물고기를 의미하다(참조, 은 1:17).

- (3) 본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짐승들까지도 부리시는 능력을 지니고 계신다는 것이다.
- (4) 이 전능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참조, 시 79:11; 12:7) 찬양과 경배를 돌려야 하겠다(참조, 대하 23:18).

6. **㉠**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그들이 범죄한 자들이라면 어떻게 보응하시겠다고 하셨는가? (4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수의 손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칼을 명하여 살륙하게’ 하며 그들에게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 (2) 이는 하나님이 범죄치 않는 자들을 보수(報讐)하시되 철저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
- (3) 그렇다면 죄에 대해 철저히 그리고 집요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인지 명백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더러운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 놓고 시인하는 겸비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참조, 요 13:3-5; 롬 12:16; 빌 2:3-11).

7. **㉠**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여 거기에 거한 자들이 애통하도록 하시는가? (5절)

- ㉠** (1)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땅을 만져 녹게 하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신다.
- (2) 여기에서 ‘땅을 만져 녹게 하다’ 라는 것은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홍수로 땅의 표면을 쓸어 버리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 (3) 따라서 거기 거한 자들이 애통해 하는 것은 홍수가 닥쳐와 생명과 재산을 휩쓸어 가 사정없이 멸절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천재 지변(天災地變)을 다스리시어 악인을 멸하시고 선한 자에게는 구원도 베풀어 주신다(참조, 시 90:5; 사 54:9).

8. **㉠**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였는가? (6절)

- ㉠** (1)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어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이라고 말하였다.
- (2) 이것은 시적(詩的) 표현으로서 자연 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시 18:11; 74:89; 104:3).
- (3) 그런데 여기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다’는 것은 바닷물이 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비 되어 지면에 떨어지는 자연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여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참조, 수 7:19; 시 66:2).
- (5)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하여 지은 바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왕상 5:7).

9.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디에다 비유하셨는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스 족속’으로 비유하셨다.
- (2) 여기에서 ‘구스 족속’이란 노아의 아들인 ‘함’이 낳은 ‘구스’가 나일 강 상류에 정착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형성된 민족으로서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인이며 그들의 피부는 검은색이었다(렘 13:23).
- (3)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스 족속 같다’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택한 백성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는 택함을 받지 못할 흑색 민족인 구스 족속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의미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여서 모든 개인이 다 택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고 (롬9:7) 말하였다.

- (5) 오늘날 교회 내에도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들은 교회를 소란케 하며, 회개할 줄 모른다.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명백하게 말씀하셨다 (마 13:24-30).

10.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아람 사람을 어디서 올라오게 하셨는가? (7절)

- ㉠** (1)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블레셋 사람을 '갓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 (2)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출애굽의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출3:11, 12).
- (3)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갓돌에서 올라오게 하였다는 것은 본래 블레셋 사람은 갓돌이 고향이었는데(참조, 신2:23; 렘 47:4) 가나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의미이다.
- (4) 또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였다는 것은 아람 사람을 길이라는 지방(사22:6)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셨다는 뜻이다.
- (5)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듯이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으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6)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잘남이나 인간적인 조건 때문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늘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롬3:21-31; 엡 2:5, 8).

11. **㉠** '범죄한 나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8절)

- ㉠** (1)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 (2) 본질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형벌을 강조하여 언급된 것이다. 그러나 본질 하반절을 보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이처럼 은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은 사랑이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었다.
- (4)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비록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한 책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임을 알고 감사와 찬양을 들려야 한다(참조, 롬5:8; 8:35; 엡 2:4).

12.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가? (9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겠다고 하셨다.
- (2) '체질한다'는 것은 환난을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시킨다는 말이다.
- (3) 따라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에 잡혀가게 하여 시련과 환난을 통해 그들을 단련시키시지만, 알곡 같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돌보시겠다는 뜻이다.
- (4)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체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에 대해 바울의 가르침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앎이로다' (롬 5:3, 4).

13. **㉠**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공의로우는가? (9절)

- ㉠** (1) 체질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공의롭다.

- (2) 왜냐하면 체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확실히 분리하시기 때문이다.
- (3)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같이 신실한 알곡들은 구원하셨고 당신을 경외하지 않은 불의한 자들을 환난 가운데서 멸망케 하셨다(참조, 느5:14;12:1, 7; 렘 40:1-6; 단 3:1-28).
-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한 사람의 의인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행 2:21; 딤편 2:4).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고 할 수 있다.

14.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중에서 어떤 자가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는가? (10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중에서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 (2) 즉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는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시키시겠다는 말이다(참조, 시 10:6; 119:70; 렘 6:14).
- (3)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범죄하고도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게 된다(참조, 살후 1:8, 9).

15. **㉠** 하나님께서 다윗의 천막을 일으키실 때는 언제인가? (11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다윗의 천막을 일으키실 것이다
- (2) 여기에서 ‘그날’이란 하나님의 심판 날을 가리키는데(8:9, 13), 이 날이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이다.
- (3)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 의인은 구원을 얻으며 악인은 영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마 25:46).
- (4) 그러므로 주 안에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때 죄를 짓고서 회개치 않는다면 영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참으로 주 안에서 의롭다 함을 입는다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참조, 시 83:12; 뱀전 2:9).

16. **㉠** 메시아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가? (12절)

- ㉠** (1) 그들은 ‘애들의 남은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 (2) 이 애들 족속은 예로부터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메시아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것을 여기서 가리킨다.
- (3)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받기로 작정된 이방인 모두를 뜻한다(참조, 행 13:48).
- (4)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뿐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참조, 행 2:39; 15:17; 28:28).
- (5)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영적 이스라엘의 기업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엡 2:5, 8).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한다(참조, 시 18:1-50; 109:30, 31; 111:9).

17. **㉠** 하나님께서 자신이 회복시키신 나라의 풍요로움을 어떻게 묘사하셨는가? (13절)

- ㉠** (1) 하나님께서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이 녹으리라’고 말씀하셨다.
- (2) 이는 메시아가 통치할 때 얻을 수 있는 복된 상황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글이다.
- (3) 즉 메시아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은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성령의 은혜와 위로를 얻게 되며,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말이다.

(4) 이미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 주셨다(참조, 뱀전3:9). 우리는 이것을 생활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18.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4절)

- ㉠** (1)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셨을 때 그들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여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을 것이다.
- (2)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나, 영적으로는 메시아의 시대에 그 백성들이 더 이상 재난과 심판을 당하지 않고 복되고 지속적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 (3) 이와 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주 앞에 범죄하여 환난과 시련을 만났을지라도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온다면 그 불행한 환난이 변하여 풍성하고 지속적인 축복이 될 것이다 (참조, 대상 23:13; 시 129:8).

19.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본토에 심으시고 무엇이라고 축복하셨는가? (15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본토에 심으시고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고 축복하여 주셨다.
- (2) 이 축복은 성도의 안전에 대한 언급으로 결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보호함을 받는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참조, 요 10:28; 17:12; 뱀전 1:5).
- (3) 달리 표현하면 이 세상 어떤 것들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쫓을 수 없다는 말이다(롬 8:34-37).
- (4)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축복 안에 거하고 있음을 감사드려야 한다. 이 축복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케 하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참조, 고후 1:21, 22; 유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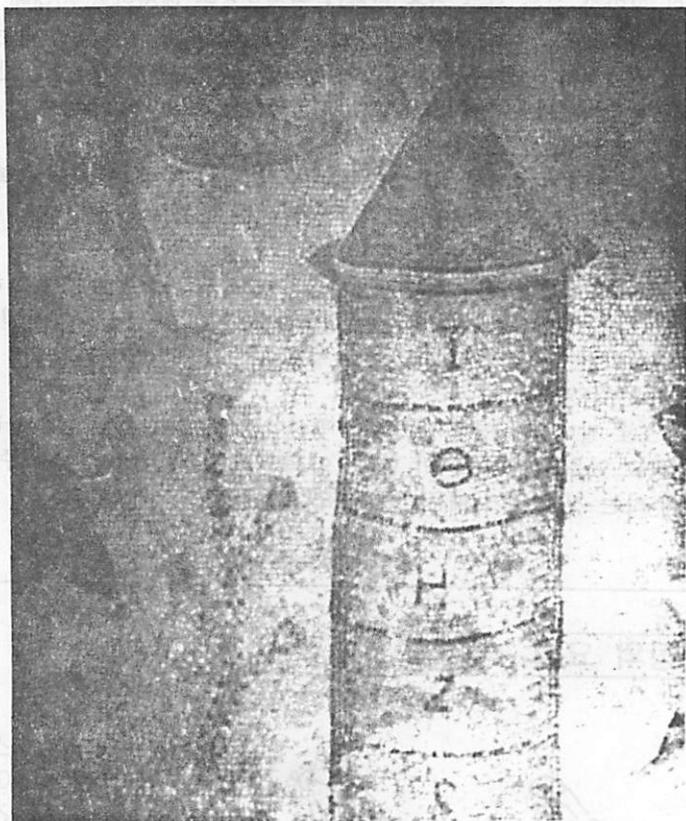
본장의 요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果園)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14절).

화보자료

나일 강의 수위(水位)를 재던 계측기(計測器). 한 비잔틴(Byzantine) 교회에서 발견된 모자이크화로서 작은 탑 모양의 그림이 바로 나일 강의 수위를 재던 계측기를 나타낸 것이다.



애굽의 대하(大河)인 나일 강은 해마다 우기(雨期)인 6-9월에 강물이 범람하여 주변 땅을 덮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를 이와 유사하게 하시겠다는 것(5절)은 곧 이스라엘이 거의 회복 불가능할 정도까지 이르게 될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서는 엄히 징계하시면서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지지는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11-15절) 이에 우리는 그분의 공의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